



[MWC D-7] 이통사 수장 MWC 총출동 5G 글로벌 외교 03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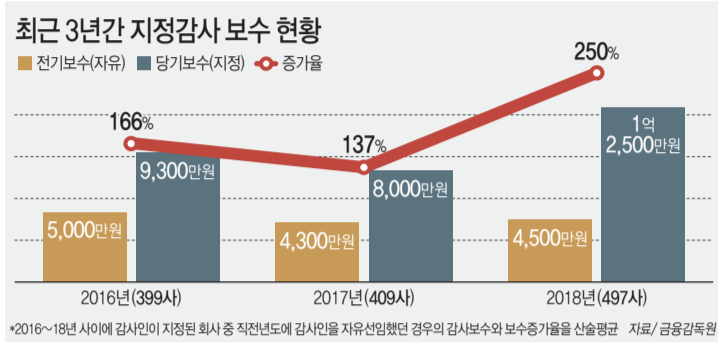
코스피	2196.09 (0.00)	코스닥	738.66 (0.00)
금리 (미국 3년)	1.78 (-0.02)	환율 (원/달러)	1128.70 (+3.60) (15일)

‘지정감사’가 뭐길래... 회계비용 3.5배 ↑ 기업 ‘찢찢’

감사보수 250% 뺨튀기에 당국, 부당 요구 제재나서 금감원 ‘신고센터’도 운영

자산 260억원 규모의 A사는 상장을 앞두고 있어 지난해 4월에 지정감사 대상이 됐다. 지정된 감사인이 요구한 보수는 2억3000만원으로 전년(1300만원)보다 무려 18배 가까이 높았지만 A사는 울며겨자 먹기로 계약을 해야 했다.

자산 1300억원의 비상장법인 B사는 지난해 7월에 감리조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그러나 회계법인과 보수문제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보수분쟁으로 체결기한인 7월 말보다 다섯 달 늦은 12월에야 계약을 할 수 있었다.



지정감사제가 감사보수 ‘뺨튀기’로 이어지면서 감독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699개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선택했던 497개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보수가 전기 자유선택에 비해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택 대비 감사인지정 보수증가율은 지난 2016년 166%, 2017년 137%로 지속적으로 높았지만 지난해는 250%로 급등하며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택 대신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인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 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감사라는 본질은 자유선택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회사 규모나 감사투입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지정사실’만으로 자유선택에 비해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형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부담이 더욱 컸다. 작년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 19개사의 지정보수는 평균 169% 상승했다. 반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자산 1조원 미만 중소형 회사 478개사의 경우 지정보수가 253%나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감사인

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분쟁으로 계약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자유선택에 비해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상 회계관리국장은 “지정감사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요구는 회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택과 지정감사 간 현격한 보수격차를 유발해 자유선택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먼저 지정감사 계약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감사인 간 보

수협약에 난항을 겪는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원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았다면 감사(감사위원회)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도 안내하고,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부산·세종, 막오른 스마트시티 시대 기반시설 구축에 2.2조... 113개사 참여

스마트시티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하는데 이어, 정부도 세계 최초로 부산과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2조 2083억원이며, 2021년께 실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첨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도입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7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모빌리티

도시 통제위험 방법·보안에 한컴, ESE 등 40여곳 참여
에너지사업에 한화 등 10곳
통신 인프라에 KT 등 16개사
모빌리티에 현대차 등 참여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이다. 관련 기업 113개가 모인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대기업 26개와 중소기업 37개, 스타트업 50개사다. 올해말까

지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에는 민간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기반 시설은 통합 플랫폼이다. 거버넌스 부문이다. 얼라이언스 참가 기업을 분석해보면 관계 시스템 개발과 방법 및 보안 등 관련사만 40여개에 달한다. 최근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한글과 컴퓨터가 대표적이다. ESE와 정도 UIT, 플렉시티 등도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해왔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스마트시



세종 5-1 생활권 구상도. / 국토교통부

티 핵심 요소다. 세종 ‘5-1 생활권’에는 제로에너지타운,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는 6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국내 최초 수열에너지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여러 에너지 기업들이 얼라이언스에 동참했다. 한화 에너지와 현대일렉트릭에너지를

비롯해 이쿠브랩과 해썬, 대연씨앤아이 등 태양광과 중수 등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는 기업 10여개가 함께한다. 헬스케어도 스마트시티 필수 요소다. 세종과 부산 모두 헬스케어 지역을 따로 구축할 예정이다. 충남대병원과 네오팩트, 비트컴퓨터 등 의료 기술 관련 업체들이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상태다.

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이 들여진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와 함께 글로벌텔레콤과 다산네트웍스, 휴맥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장비 업체들이 스마트시티 연결에 나선다. 얼라이언스 16개사 정도가 통신과 관련이 깊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톡모빌리티, 쏘카는 스마트시티에 스마트 모빌리티를 심는다. 포스코ICT는 충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쇼핑 관련 기업 참여도 눈에 띈다. 이마트와 신세계 프라퍼티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어디서나 쇼핑을 가능케할 뿐 아니라 미래 쇼핑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대페이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김재웅 기자 juk@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발생한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 (주)한화 임직원들은 안타까운 인명피해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주)한화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팀을 꾸려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결과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주)한화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

최저임금·경기악화에... 자영업자 대출연체 '이상급증'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1.43% 달해
전년도 1.32% 보다 0.11%p 늘어
저소득·저신용 연체자 두드러져

〈자영업자 금융채무불이행 현황〉

(단위 명.%)

시점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1분기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전체채주	1,606,145	1,779,915	1,831,112	1,874,519	1,913,392	1,946,113
채무불이행채주	21,868	23,462	24,880	25,996	26,995	27,917
비율	1.36	1.32	1.36	1.39	1.41	1.43

영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일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상승과 경기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중심으로 연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에서도 연체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한국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2017년부터 채무불이행자 비율 ↑

17일 나이스신용평가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개인)이 보유한 기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향 안정화 추세를 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망라한다.

2018년 말 기준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는 2만7917명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자(194만6113명)의 1.4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말(1.32%)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14년

말 1.59%, 2015년 말 1.43%, 2016년 말 1.36%였다. 즉 2014년 이후 하향 안정화 되던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악화된 셈이다. 특히 2018년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36%, 2분기 1.39%, 3분기 1.41%, 4분기 1.43%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평가된다.

채무불이행자비율은 채무불이행자수를 전체 대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즉 분모인 전체 대출자 수가 급증하면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다. 그만큼 대출보다 연체 증가세가 확연한 추이라는 뜻이다.

◆ 연체를 '경보', 저소득·30~40대 '타격'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두드러졌다.

신용등급 최하등급인 10등급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2017년 말 53.14%에서 지난해 말 58.10%로 4.96%포인트 올라갔다. 같은 기간 9등급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1.22%포인트 개선됐지만 8등급은 0.39%포인트 악화했다.

소득수준별로 봤을 때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층에서 타격이 컸다.

1년간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을 보면 소득 3000만~4000만원 구간이 0.27%포인트로 가장 컸고, 1000만원 이하가 0.16%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이 0.24%포인트로 가장 컸다. 30

대가 0.12%포인트, 50대가 0.08%포인트 순이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서 연체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업권별로는 카드업계의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이 0.41%포인트로 가장 컸고 캐피탈 0.24%포인트, 은행 0.14%포인트, 상호금융 0.09%포인트 등 순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근로자의 1.4배에 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높아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윤열 의원은 "전체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면 가계부채 전반에 걸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영미 기자 sonumij301@metroseoul.co.kr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서울로7017에서 열린 '대보름축제, 서울로 밝기'에서 풍물패가 대보름 다리 밝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中 무역갈등, 韓-아세안 경험 키운다

아세안 대외무역 현황·발전방향

단기적으로 아세안 수출증가세 제약
전기전자·기계류 등 수출 부진 예상

미·중 무역갈등으로 아세안 국가와 한국 및 일본 간 경제협력 관계가 넓어질 것 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가간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아세안 국가의 대외무역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간 무역갈등과 이에 따른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강화는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의 무역을 통한 경제협력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강화 등 세계 경제 여건 변화는 아세안 5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대외무역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중간재 수출과 아세안 5국의 최종재 생산으로 결합된 역내 가치사슬이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일시적으로 악화되면서 아세안의 수출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부과 항목에 다수가 포함된 전기전자,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

출결합도와 역내 가치사슬의 전방참여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이 보다 강화될 경우 향후 아세안과 중국간 상호협력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아세안 5국과 중국 간 연계성 약화 우려는 투자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국은 대외확장정책인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미국의 견제가 인프라투자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아세안 5국과 중국 간의 협력관계가 다소 정체되면서 한국, 일본과는 역내 분업화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가 보다 밀접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을 보면 중간재, 자본재 부문에서 최근 10년중(2008~17년) 각각 연평균 14.0%, 13.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아세안 중간재, 자본재 수출도 최근 2~3년중 감소 추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내수중심 전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는 금융, 법률, 기업컨설팅 등 상업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무역구조가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주택시장 흑한기... 매매 '뚝' 전·월세 '쑥'

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하락
'내집마련' 시기 늦추는 분위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가를 비롯해 전·월세 가격 모두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집값이 빠르게 내려가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매 거래가 뚝 끊기고 임대 거래가 활발해졌다. 주택 시장 흑한기에 수요자들이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떨어져 13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시장도 0.09% 내려 15주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 떨어져 5주 연속 약세다.

서울은 용산을 제외한 송파(-0.13%), 강남(-0.09%), 서대문(-0.06%), 양천(-0.06%), 강동(-0.05%), 마포(-0.04%)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10주 연속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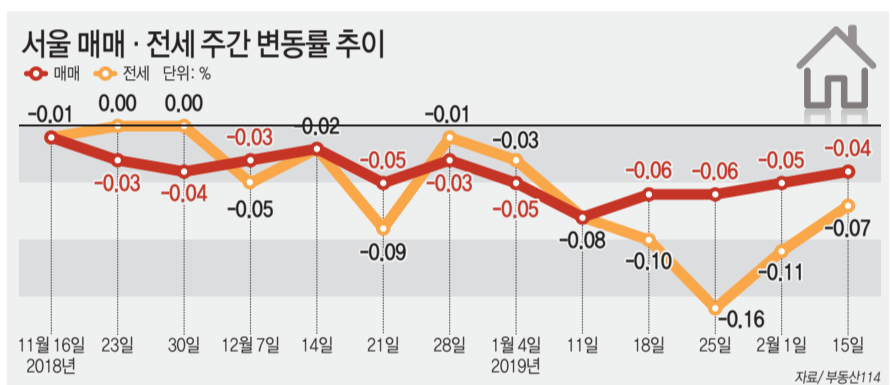
서울은 0.07% 하락하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7%, -0.09%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송파 헬리오시티' 등 강남권 대규모 입주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하락세가 강동을 넘어 광진, 중구, 종로 일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별로 강동(-0.26%), 광진(-0.25%), 중구(-0.24%), 종로(-0.19%) 등이 전주 대비 -0.20% 안팎 내려갔다. 신도시도 위례(-0.30%), 평촌(-0.24%), 동탄(-0.07%), 산본(-0.06%), 중동(-0.05%), 일산(-0.04%) 순으로 하락했다.

정유사 정제마진 약세... 팔수록 '손해'

지난해 4분기부터 급락 시작

정유사의 주요 수익으로 이어지는 정제마진이 지난해 4분기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



06%), 중동(-0.05%), 일산(-0.04%)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지역 매매·전세 동반 하락은 10주 연속으로, 이는 2012년 16주 연속(3월 9일~6월 22일) 동반 하락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월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투·쓰리룸의 평균 월세는 65만원으로 전월의 70만원에 비해 7.14% 하락했다. 작년 1월(75만원)보다는 13.3%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지역 전용면적 60㎡이하 투·쓰리룸 등 록 매출의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결과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의 청약·대출 문턱을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늘렸다. 최근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도 인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단독주택과 토지가격에 대한 표준공시가

격 발표 이후 보유세 상승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매매가 하락에도 집을 장만하기 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며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추가 하락 기대감을 품고 '내집마련' 시기를 미루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877건으로 전년 동월(1만198건)의 18.4%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월세 거래량은 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1000건으로 전년(167만4000건) 대비 9.4% 증가했다. 3년 평균(165만 5000건)과 대비해서도 10.6% 늘었다.

이런 분위기에 시장에선 좀처럼 매매 거래 절벽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수요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입 시기를 뒤로 미루는 분위기"라며 "거래 위축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손익분기점(4~5달러)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지면 석유제품을 생산할수록 적자가 쌓이게 된다.

업계에서는 올 1분기에 반등을 기대했지만 정제마진의 회복세가 더디는 등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1달래대까지 내려앉아 올해 1분기에도 적자 탈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진 기자 ujjin6326@

여전히 은행에 목매는 中企... IB, 모험자본 중개 '미흡'

자본시장법 시행 10년

(下) 자금조달 역할 평가

덩치 커졌지만 중개기능은 '약골'
자본시장서 자금 조달 기업 28%
中企 적극 활용토록 접근성 높여야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이후 10년간 금융투자업의 덩치는 커졌다. 특히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자본총계)이 커지고 투자은행 수의 규모도 4배로 늘어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자금 조달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크게 은행 대출(간접금융)과 자본시장(직접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은행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2008년까지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80%를 웃돌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는 크게 역전됐으나,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은행 대출의 비중이 70%선까지 증가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2009년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 도입 전인 2008년 이전에 비해 절대값은 늘었지만 여전히 은행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이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업 부문의 자금조달에서 내부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하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내부 자금이 투자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문의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높여야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외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연구원은 "외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자본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모습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직전인 2008년 말 기업이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본금은 약 68조 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대기업은 약 23조

6000억원을, 중소기업은 약 45조원을 빌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은행에서 조달했다.

2008년 말 기업이 회사채나 주식 발행 등 자본시장을 이용해 조달한 자금은 2조 9000억원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이 지난 2019년 1월에도 은행 기업 대출은 7조 6487억원이었다. 이 중 대기업의 은행 대출은 3조 3824억원,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은 4조 2663억원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은행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동안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액수는 2조 9812억원으로 기업의 전체 자금 조달 비중의 약 28%였다.

조 연구원은 "실물(기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신생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담당해야 하는 '모험자본 공급'의 기능이다"고 덧붙였다. /세한남 기자 ericbae1683@metro.co.kr

국내선 우량, 해외나가면 찬밥?... 국내 신평사 신뢰도 문제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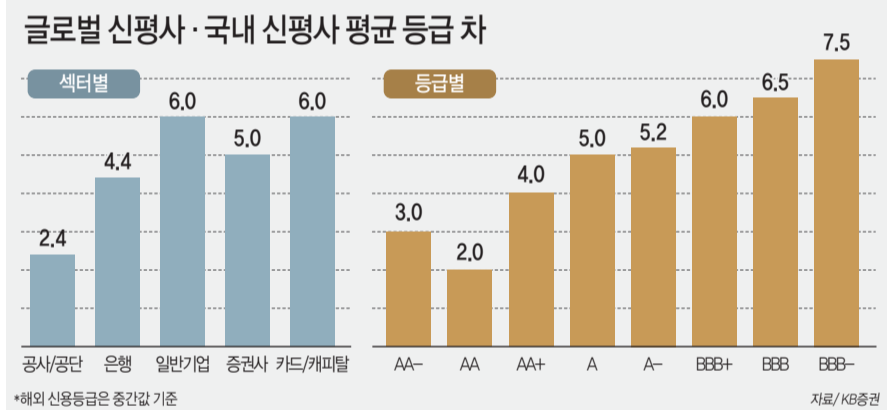
글로벌 신평사와 평균 등급차 6.0
하위 등급일수록 등급차 격차 커

"대기업 입김 등 체계·구조적 문제
소버린 리스크 반영 여부도 기인"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기업 '신용 인플레이'가 우려 수준이란 지적이다. 특히 해외 신평사로부터 받은 등급이 국내보다 최대 8계단 낮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신평사의 평가 신뢰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KB증권에 따르면 일반 기업에 대한 글로벌 신평사와 국내 신평사의 평균 등급(Notch)차는 6.0에 달한다. 다만 수준도는 3등급 차이에서 최대 8등급까지 다양하다.

캐피탈·카드사의 평균 등급차도 6등급



가량이다. 은행의 경우 특수은행은 2등급, 시중은행은 4등급 정도이다.

공사·공단은 2.4등급으로 큰 차가 없다. 영위 사업의 공공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 정부 지원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등급별로도 격차가 컸다.

'AA-'등급은 3.0 등급의 격차를 보였

다. 'AA'등급은 2.0등급차였다. 'A+'(4.0등급), 'A'(5.0등급), 'A-'(5.2등급), 'BBB+'(6.0등급), 'BBB'(6.5등급), 'BBB-'(7.5등급) 등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등급차가 컸다.

전문가들은 등급 격차가 큰 이유로 국내 신평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꼽는다. 신평사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

가해주는 대가로 그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래서 돈을 주는 '고객'의 신용 등급을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 더구나 신평사들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경우 그 기업을 회생 불능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한다.

신용평가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신평사는 해당 기업의 국내 경쟁력만 따지고 모기업의 지원 등 한국 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매긴다"며 "평가 수수료가 국내 신평사의 주 수입원인 현실에서 대기업 집단의 입김이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도 신용등급 거품형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글로벌 신평사와 국내 신평사의 평가 방법 자체가 달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글로벌 신평사의 등급조정이 국내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의 방향성에 있어 참고 지표는 될

수 있지만, 조정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국내의 신용평가사의 등급 체계와 평가 방법론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해외 신용평가사의 방법론은 다양한 국가의 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양한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됐다. 반면, 특정 국가의 산업적 특성이나 기업의 특성은 잘 반영되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버린 리스크(sovren risk·국가 신용 위험) 반영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글로벌 신평평가사의 등급과 국내 신평평가사의 등급은 공통적으로 부도율에 기반해 'AAA'에서 'D'까지 등급별로 각기 다른 신용위험 수준을 나타낸다. 하지만 국내 신평평가사의 등급에는 대한민국의 부도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암묵적으로 국내 신평평가사의 대한민국 신용등급은 'AAA'로 간주한다.

/김민호 기자 kmh@

하나금융투, 대구 자갈마당 개발에 금융지원

대구시 등과 4자간 업무협약 체결
5000억 규모 파이낸싱 대출 제공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5일 대구 중구 도원동 '자갈마당' 개발과 관련해 대구시와 하나자산신탁, 민간 개발 시행사인 도원개발과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로 하나금융투자는 부동산 금융분부를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PL)을 제공하는 등 자갈마당 개발사업의 금융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사업은 도원동 자갈마당 일대 1만9080여㎡에 지하6층, 지상 49층 아파트 891가구와 오피스텔 267가구 등 1150여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오는 8월 착공해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갈마당은 1900년대 초 일본인들이



대구시 도원동 '자갈마당' 개발사업 계획 조감도.

집단 거주지를 형성할 때 공장을 함께 들여온 데에서 시작, 100년 넘게 이어진 성매매 집결지로 대구시는 최근 수년간 이 지역을 주거시설과 공원 등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는 "도원동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ij301@

한화생명 '더 간편한 건강중신보험' 고혈압 등 유병자 위한 '3대 성인병' 집중 보장

한화생명은 당뇨, 고혈압 등 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유병자를 위한 '한화생명 더(The) 간편한 건강중신보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경증 질환을 갖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고지항목 3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다.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받은 이력 등이다. 고혈압, 당뇨는 물론 어떤 병력을 갖고 있어도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연령을 확대했다. 젊은 나이에도 만성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30세부터 가입 가능하다. 기존 유병자 상품은 대부분 40세부터 가능하다.

주계약을 통해 사망뿐 아니라 3대 성인질환도 보장한다.

/김희주 기자 hj89@

NH농협은행 스타트업 육성투자에 200억 펀드

아주IB투자·크레비스 파트너스와 혁신스타트업 육성투자 지원 협약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 아주IB투자, 크레비스파트너스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혁신스타트업 육성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NH핀테크 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NH 디지털챌린지플러스(Challenge+)' 도입과 혁신스타트업 전용투자자금 'NH-아주 디지털혁신 펀드'를 조성해 국내 다양한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해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는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성공적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전문 프로그램으로 지난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 1기를 모집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NH농협은행 본사에서 남영수 디지털금융부 부부장(왼쪽 두번째)과 아주IB투자 김지원대표(왼쪽 첫번째), 크레비스파트너스 김재현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아주 디지털혁신 펀드'는 약 200억원 규모로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성장을 위한 지분투자 및 투자 멘토링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연계할 계획이다. 최우선적으로 'NH디지털 챌린지플러스' 참여기업과 NH핀테크 혁신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스탠드 조명 50만원, 토스터기 32만원, 공기청정기 200만원...

사치와 가치 사이... 필수 가전 프리미엄 열풍

다이슨 '데스크조명' 국내 첫 출시 자연광 재현... 최고 96만원 달해
가치 소비, 주거 형태 등 변화로
고가에도 입소문 타고 판매량 ↑

가전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열풍이 거세다.

탁상용 조명과 주방용 틈새 가전, 공기청정기 등이 성능과 혁신 기술, 디자인까지 세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시장 확대에 한창이다. 가격이 통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임에도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스탠드 조명이 50만원

1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최근 '라이트 사이클 데스크 조명'을 국내에 최초로 출시했다. 9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2년여를 개발한 다이슨의 야심작이다.

다이슨 조명은 데스크형과 플로어스탠드형으로, 각각 66만원과 96만원에 판매된다. 심플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물론이고, 시간에 따른 자연광을 재현해내는 기능까지 탑재했다. 사용자와 모드에 따라 서로 맞춤형 조명을 제공하며, 60년동안 빛의 품질을 유지하는 내구성도 갖췄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 모델은 일본 발뮤다가 만든 더 라이트뿐이다. 스탠드 조명이지만 가격이 49만9000원이나 된다. 아



삼성전자 모듈형으로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큐브(왼쪽)와 하우스룩 라면조리기.



/각사

마다 의료조명과 공동 개발한 '포워드뷰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적용해 그림자 없는 자연 백색을 구현해내는 제품이다.

발뮤다는 주방 가전에서도 색다른 프리미엄 바람을 불러온 주인공이기도 하다. 빵을 촉촉하게 데워주는 31만9000원짜리 토스터기를 통해서다. 비싼 가격에 유통망도 좁은 편이지만, 입소문을 타고 젊은 소비자 주방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다.

라면조리기는 1인가구와 '쉐어하우스'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인기를 얻게된 신개념 주방 가전 제품이다. 최근 출시된 하우스룩은 인덕션에 온수기 기능을

품에 안고 라면조리뿐 아니라 젓병 소독 등으로도 활용을 확대한 상태다. 50만원대에 달하는 가격이 아직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는 '홈브루잉'이 '대세'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LG전자가 'LG 홈브루'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캡슐커피와 같이 맥주 캡슐과 물만 넣으면 2~3주 후에 맥주 5l (리터)를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지난 'CES 2019'에서 큰 기대를 받기도 했다. 4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 예상됨에도,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출시

를 기다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치 소비도 늘었지만 주거 형태 변화로 필수 가전 대신 자주 쓰는 가전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사치가 아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기청정기 100만원 시대

공기청정기는 이미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시장 규모가 매년 50% 가량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전 브랜드들은 앞다퉈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출고가 149만원에 출시된 LG 전자 프리미엄 브랜드인 시그니처 가습 공기청정기가 경쟁 신호탄을 쏘았다. 이어서 LG오브제에서도 199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선보였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큐브는 무풍청정과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분리·합체가 가능한 모듈형으로 주목받았다. 출가는 80만~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이슨도 날개 없는 선풍기 기술을 이용한 퓨어쿨과 핫엔쿨을 상반기와 하반기 잇따라 내놨다. 특히 온풍기 겸용 공기청정기 핫엔쿨은 우리나라를 중국에 이은 두번째 출시국으로 선정해 주목도가 높았다. 가격은 각각 70만, 90만원대다.

올해에는 발뮤다도 경쟁에 동참했다. 6년만에 새로 출시한 '발뮤다 더 퓨어'다. 6년만에 나온 신제품이지만,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를 감안해 일본보다 먼저 출시했다. 정제된 디자인에 항공기 체트 엔진 기술을 응용했다. 가격은 74만9000원이다.

여기에 개인용 공기청정기까지 시장을 선을 보였다. 스위스 아이큐에어가 만든 '아템'으로, 저전력고성능을 표방하고 있다. 가격도 무려 73만7000원으로 다른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와 차이가 없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LG CNS, 아마존과 손잡고 클라우드 가속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협력
50 in 50 전환 프로그램 첫 도입

LG CNS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국내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한다. LG CNS는 15일 AWS와 클라우드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LG CNS와 AWS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보다 빠르고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전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양사는 AWS의 글로벌 클라우드 전문성, 탁월한 안정성, 보안 및 성능에 LG CNS의 우수한 국내 IT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통합, 국내 기업들의 효과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LG CNS는 AWS가 보유한 50일 안에 50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50 in 50 전



지난 15일 열린 LG CNS-AWS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식에서 김영섭 LG CNS 사장(왼쪽)과 에드렌타(Ed Lenta) AWS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디렉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환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양사는 이 프로그램을 LG CNS의 일부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먼저 적용한 후, LG 계열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 클라우드 전환으로 확대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 진출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5G, 인공지능, IoT, 스마트팩

토리 등 신기술 영역의 솔루션 개발에도 협력한다.

LG CNS와 AWS는 2017년 클라우드 분야 포괄적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LG CNS가 대한항공 전자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2000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양사가 '한국형 금융 클라우드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식은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LG CNS 본사에서 김영섭 LG CNS 사장, 현신균 CTO 부사장, 이재성 하이테크사업부장 부사장, 최문근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 상무, 에드렌타AWS아시아태평양지역(APAC)총괄 디렉터, 장정욱 AWS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서윤 기자 yun2514@



LG이노텍, 2019 동반성장 상생데이 성료

LG이노텍이 15일 서울 마곡 LG이노

텍 R&D캠퍼스에서 '2019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철동 사장(앞줄 가운데)과 이용기 구매담당(상무), 협력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동반성장 상생데이'는 LG이노텍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LG이노텍은 '협력사 테크 페어'를 열어 협력사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LG이노텍

빅스비 탑재... 삼성 '갤럭시 탭 S5e' 공개

무게 400g, 두께 5.5mm '슬림형'

삼성전자가 슬림한 디자인에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5e'를 17일 공개했다. 무게 400g, 두께 5.5mm의 메탈 디자인으로 휴대성과 내구성을 갖췄다.

갤럭시 탭 S5e는 10.5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하만의 오디오 전문 브랜드 'AKG'의 음향기술로 완성한 4개의 스피커 등으로 향상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물리적 홈 버튼을 제거하고 디스플레이



갤럭시 탭 S5e. /삼성전자

이의 상하단 베젤을 최소화해 슬림한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16:10의 화면비로 보다 향상된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갤럭시 탭 S5e는 3D 입체 서라운

드 음향효과인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며, 사용자가 태블릿을 가로로 사용하는지 세로로 사용하는지 인식해 자동으로 스피커를 전환함으로써 최적의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탭 S5e는 삼성 태블릿 최초로 '빅스비 보이스'를 탑재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탭을 통해 빅스비와 연동된 가전 제품을 음성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단축 명령어' 기능을 통해 한번의 음성 명령으로 복합적인 다양한 작업도 실행할 수 있다.

갤럭시 탭 S5e는 실버, 블랙, 골드 3가지 색상으로 2분기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 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김재용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르노삼성, 최장파업의 유산... 1200억 손실, 판매 20% ↓

임단협 14차 교섭에도 평행선
노조 30여회 '최장 파업'에
차량 6400여대 생산 차질
로그 후속물량 배정 불확실

르노삼성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의 부분파업도 이어지고 있다. 노사간 '줄다리기'로 손실액은 불고 있는 가운데 위탁생산 중인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30여회 파업을 진행하며 최장 파업 기록을 쓰고 있다. 해를 넘겨 2월이 되었지만 임단협 타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는 지난 12일 제 14차 교섭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14일 임단협 제15차 교섭을 갖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15일에는 13일에 이어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QM6를 생산하고 있다.



10만667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대신 최대 14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노조의 부분파업 이후 6400여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손실액은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르노 본사에서 배정하는 '닛산 로그'

위탁생산 물량의 계약이 올해 9월 종료된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이 차종의 경우 전체 50%에 가까운 물량이 부산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파업이 길어질수록 후속 물량을 배정받기 힘들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공장의 인건비가 크게 오를 상태라는 게 약점이다. 부산공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매년 2~3%씩 오

르는 추세로 2017년 기준 평균 7800만원으로 닛산 로그 물량을 처음 배정받았던 2014년보다 20% 상승했다. 르노-닛산 그룹 내 46개 공장 가운데 세 번째로 평균임금이 높다.

현재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단일 생산 라인에서 7종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어 그와 일부 노후 차종의 생산을 중단하

라도 나머지 차종의 생산량을 늘리면 가동률 하락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르노삼성의 지난해 내수 판매는 5174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2% 급감하는 등 모델 노후화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QM6는 가솔린 모델의 추가로 작년 동월 대비 31.6% 늘었지만, SM6는 37.4% 급감했다.

회사 측은 SM6와 QM6의 내수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하반기에 생산성을 강화한 모델을 출시할 방침이다.

한편 로스 모저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최근 부산공장 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로그 후속 물량 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하며 파업 종단을 촉구한 바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관계자는 "15차 교섭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노조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큐브 4개 컬러 추가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4가지 색상을 새로 도입한 큐브 컬러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프라임 핑크 ▲피치 오렌지 ▲세이지 블루 ▲콰이어트 그레이 등이다. 이번에 도입한 컬러는 미세한 가루 입자를 제품 표면에 도포해 색을 입히는 분체도장 방식을 사용했다. 발색과 내구성이 높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2개 이상 색을 섞어 사용해 더 세련되고 깊이 있는 질감도 구현했다.

삼성전자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큐브가 봄을 앞두고 상큼한 컬러를 갈아입었

/삼성전자

이스타항공, 운항지연 등 악재 황금노선 운수권 확보 난기류

푸꾸옥행 취항 첫날 7시간 지연
나짱→인천공항행도 3시간 지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체 중 올해 상장을 준비중인 이스타항공이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 운항 항공기 문제로 운항이 지연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확보에도 먹구름이 겹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40분 인천에서 베트남 푸꾸옥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내비게이션 문제 등으로 출발이 7시간 지연됐다. 해당 항공기는 16일 오전 2시 35분에야 인천 공항을 출발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디아이싱 작업에 1시간 이상 소요됐다"면서 "또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생겨 이를 업데이트하느라 시간이 걸린데다가 근무시간 초과가 우려되는 승무원도 교체해야 해 출발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의 인천~푸꾸옥 노선의 첫 취항날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 176명이 늦은 밤 공항에서 대기하며 불편을 겪었다. 이스타항공측은 대기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식사쿠폰과 담요를 지급했다. 이

스타항공의 지연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한국시간으로 16일 새벽 3시 반 베트남 나짱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기도 3시간이 지연돼 새벽 6시 20분쯤 나짱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객들은 이스타항공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노선 예약을 받아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며 항의했다.

이스타항공은 연초부터 운항 지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한국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항공산업 제도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몽골과 싱가포르 노선 등 신규·확대 노선의 운수권 배분 결정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심의위원회가 정한 각종 지표를 평가해 높은 점수를 얻은 곳에 운수권을 배분할 방침이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몽골, 싱가포르 노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거리 노선 확대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어렵게 된다. 결국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추진중인 상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편드라이빙 '벨로스터N'... 30대 환호성

현대차, 구매자 설문조사
평균연령 33.7세... 車 경험 많아
구매시 감성·성능 등 중점 살펴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모델 '벨로스터 N'이 편드라이빙을 즐기는 젊은 30대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벨로스터 N 출고 고객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3.7세였다. 연령별로도 30대가 59%로 가장 많았다. 짜릿한 감각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성능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벨로스터 N 구매 고객들은 차량에 대한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벨로스터 N 이전에 차량을 4대 이상 구매한 비율이 51%에 달했으며, 생애 첫차로 벨로스터 N을 구매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특히 벨로스터 N 차주들은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89%) ▲주 1회 이상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89%) ▲단순히 운전을 즐긴다



현대차 벨로스터 N.

(70%)는 답변을 한 비율이 높았다. 평범한 고객과 구분되는 마니아적 성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파급력이 높은 자동차 고관여층인 셈이다.

자동차 구매 시 주함감성, 핸들링 및 코너링, 엔진 성능 등 주행 성능 관련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성향도 보였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격이나 실내외 디자인, 편의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다.

벨로스터 N을 운용하는 방식에서도 일반 시내 외출 용도보다는 기분 전환 드라이브(87%), 서킷 등 고속주행(73%), 취미

(70%)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설문대상 차주 가운데 실제 서킷 경험이 있는 운전자도 87%에 달했다.

벨로스터 N의 비교 대상 차량으로는 메르세데스-AMG A45(12%), 도요타 86(8%), BMW M2(6%) 등 후륜구동 스포츠 카들을 꼽았다.

설문 결과 벨로스터 N 차주들의 구입 목적은 고성능 라인업 N의 철학인 '운전의 재미'와 맞닿아 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벨로스터 N은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1349대가 판매됐다.

/양성운 기자 ysw@

KT, MVI와 亞·중동서 AI호텔 사업 추진

음성 AI '기가지니' 플랫폼 연동 등
전 세계 호텔 대상 사업 개발 MOU

KT가 아시아와 중동에 인공지능(AI) 호텔 사업을 추진한다.

KT는 지난 15일 홍콩의 아시아·중동 인터넷TV(IPTV)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사인 MVI와 아시아 및 중동에 있는 호텔에 AI 서비스 도입 및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MVI는 IPTV에 호텔 전산시스템과 연동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 홍콩, 싱가포르, 수단 등 아시아 18개국에 있는 주요 글로벌 호텔 체인의 6만개 이상 객실에 IPTV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



KT 글로벌사업개발 본부장 김영우 상무(오른쪽)와 MVI CEO 양계일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리모컨 제어 기반 호텔 IPTV 플랫폼과 KT가 보유한 음성 AI 플랫폼 '기가지니 호텔' 플랫폼을 연동시켜 전 세계 호텔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을 개발한다. 또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위한 R&D 협력을 추진한다.

양사는 글로벌 호텔 대상 AI 기술 기반 룸 자동화, 로봇 어메니티 서비스, 호텔형 한류 콘텐츠 공급 등에서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 적용 후 연내 상용화한다.

한편, KT는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호텔&레지던스를 시작으로 조선호텔의 레스케이프, 그랜드 엠베서더 풀만호텔 등과 협력해 AI 호텔을 선보였다.

/김나연 기자 silkni@

하고 있다.

KT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MVI의

상상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새로운 100년 더 젊은 대한민국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은 청년정신으로
KT&G가 청춘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100년, 더 뜨겁게 달리겠습니다.

사진제공 : 독립기념관



‘행동주의’ 압박에 배당 사상최대... ‘투자부진’ 우려도

상장사 499곳 배당금 26.3조 달해 20.8조 수준 전년대비 25.9%증가

“무조건적 ‘배당확대’ 요구 안돼 장기적인 가치 높게 고려해야”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어지면서 상장사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의 배당금만 해도 사상최대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기업의 배당확대가 자칫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14일 현재까지 배당을 공시한 499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2018 사업연도 배당금을 집계한 결과 총 26조 2676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배당금(20조8593억원)보다 25.9% 증가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심지어 이는 비교적 배당을 일찍 시작한 499개사만 합산한 것이어서 전체 상장

사 배당금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2018년 배당이 큰 폭 증가한 기업〉 (단위: 억, %, %p)

기업	2017	2018	YoY	
GS건설	배당성향	-12.5	13.5	26
	지배주주순이익	-168	583	흑전
현대그린푸드	배당성향	6.2	13.7	7.5
	지배주주순이익	113	134	18.1
LG	배당성향	9.5	18.9	9.3
	지배주주순이익	2396	1864	-22.2
이마트	배당성향	7.9	11.6	3.7
	지배주주순이익	616	479	-22.3
현대백화점	배당성향	7.1	8.6	1.5
	지배주주순이익	354	236	-6.9

자료=전자공시, 한국투자증권

배당성향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작년도 실적과 배당을 모두 공시한 309개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1.2%로 전년(16.4%)보다 5%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이해 국민연금 등 기관들의 배당 확대 요구가 거세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일부 기업은 감익 상황에서도 전년보다 배당규모를 올리는 발표를 했다”며 “기관 투자자의 의견권 강화, 주주총회를 위한 소액주주의 지지확보, 정부 정책을 고려해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과 대응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 ‘잔물 배당’으로 유명한 현대그린푸드는 2018년도 배당금을 183억원으로 전년(70억원)보다 약 2.6배 늘렸다. 배당성향 역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높아진 13.7%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주주행동을 한 결과다.

최근 KCGI(일명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이 타깃이 된 한진그룹 역시 ‘그룹 중장기 비전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을 통해 한진칼의 배당성향을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배당성향(3.1%)의 16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어 광주신세계도 KB자산운용의 요구를 받아들여 배당금을 48억원으로 지난해(2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순이익 감소에도 배당을 늘린 기업도 다수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22.7% 줄어든 LG는 배당 확대를 통해 배당성향을 18.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9.5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어 포스코, 이마트, SK디

스커버리 등도 순이익 감소에도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같은 배당확대가 자칫 기업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주행동주의가 단순히 배당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1일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했고, 남양유업은 공개적으로 주주제안 거부이사를 밝혔다. 낮은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대신 무차입경영 등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어 배당 확대는 결국 대주주에게 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에게 무조건 배당확대를 요구하는 것을 투자여력을 감소시키는 일일 수 있다”면서 “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는 기업과 대화를 통해 배당 대신에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월 셋째 주 분양캘린더〉

구분	시기	시/도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청약 접수	18일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464	464	20~43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1,050	1,050	19~84
	20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1,540	1,540	75~105
21일	부평구 갈산동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	151	151	59~74	
M/H 오픈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1,116	419	39~114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1,199	659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지구 시티프라디움	746	746	84
			아산시 탕정면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1,521	1,521	84~101

* 위 내용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자료=리얼투데이

서울·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쏟아진다

분양캘린더

2월 셋째 주에는 서울·수도권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쏟아진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4곳에서 총 3205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이 기간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오는 18일 경기 부천시 중동에선 1050

가구로 이뤄진 오피스텔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가 공급된다. 인천 서구 원당동에선 1540가구로 조성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가 이달 20일 분양된다.

이 밖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1116가구)’와 비산2구역 주택재개발 단지의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1199가구)’,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공급되는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1521가구)’ 등이 모두 오는 22일 건보주택 문을 연다.

당첨자 발표는 4곳, 계약은 6곳에서 진행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코스피 1.02% ↑ ... 국내 주식형펀드 상승세

주간펀드동향

미국의 정치적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과 순자산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17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2월 8일~14일)간 전주 대비 1.02% 상승한 2225.85포인트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 미국 섯다운(일시 폐쇄) 우려 완화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해당기간 기관은 2780억원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이는 2월 옵션만기일을 활용해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매수세가 물린 영향으로 보인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

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1.02% 상승한 2047.56포인트를 기록했고, 신중국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 역시 전주 대비 0.27% 하락한 1039.20을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1.12%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순자산은 3280억원 늘었으나 차이 실현으로 인한 3950억원 어치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1.59% 수익을 올렸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베트남(4.64%), 중국(3.01%), 중화권(1.57%)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러시아(-2.53%), 신흥유럽(-2.41%), 중남미(-1.84%)펀드는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순자산은 3520억원 늘었다. /손영지 기자

비상발전기 시장 80% 점유... 올 매출 45% ↑

株라쿨라의 종목

지엔씨에너지

구글 등 16개 기업 2년내 IDC 구축 비상발전기 매출 450억 기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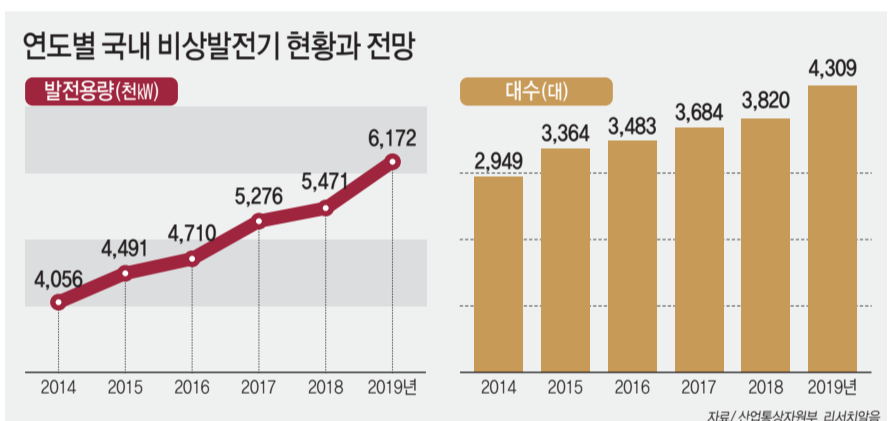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산업이 등장하면서 초대형(Hyperscale)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대용량 비상발전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관련 기업에 수혜가 예상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7일 국내 인터넷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시장에서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지엔씨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엔씨에너지는 비상·상용발전기 전문 업체로,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전력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력공급을 대체하는 예비전원장치를 만들고 있다.

최 연구원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네트워크 가상화 등이 활성화되면서 수혜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들이 분산돼 있던 전산망을 통합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력 비상시를 대비한 발전기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삼성SDS 등 주요 기업이 국내에 16개 이상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IDC용 비상발전기 수요 확대로 지엔씨에너지 비상발전기 부문의 외형성장이 확실시된다. 올해 IDC용 비상발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45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IDC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는 한 번 수주에 성공하면 향후 서버 증설시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신성장동력인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부문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최 연구원은 “지엔씨에너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하수 및 음식물쓰레기 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해 판매한다”며 “최근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사업초기 단계로 매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마진이 높아 이익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LH, 314개 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아산배방 에너지공급시설을 시작으로 약 2개월 간 전국 314개 사업장에서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사전 예방활동

이다. LH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개선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산배방 에너지공급시설 점검에는 박상우 LH 사장을 비롯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작업환경과 근로자 휴식공간을 집

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LH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설유지관리 직원 등 현장근로자들이 점검에 동행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LH는 앞으로 2개월간 LH 점검반과 외부의 안전전문기관, 근로자 대표와 함께 전국의 임대주택 및 건설현장 등 314개 사업장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균열과 전기누전, 해빙에 의한 현장환경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주총 정족수를 채워라” 코스닥社, 감사선임 난항

올해도 새도보팅 폐지 ‘후유증’

올해도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새도보팅’ 폐지로 코스닥 상장사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새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7년 말로 폐지됐다. 새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주총 시즌에는 56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바 있다. 56개사 가운데 51곳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코스닥협회는 “지난해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이하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하려던 코스닥 기업 335개사 중 51개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올해는 약 450개 회사가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분 구조상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기본적인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최대주주의 지분이 25%를 넘는다면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 안건 결의에는 무리가 없다.

문제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안건이다. 감사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의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3대



2017년 말 새도보팅 폐지 이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자투표에 대한 상장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왼쪽)이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방송인 오상진씨와 포즈를 취했다. /예탁결제원

기관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인데 새도보팅 폐지 이후 감사 선임이 어려워졌다”며 “감사를 선임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기존 감사가 연임도 아닌 어쩔만한 상태로 계속 감사직을 기약 없이 봐야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올해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들이 늘어 부결 안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 결의 안건이다.

지난달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928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154개사(8.2%)는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감사 선임 외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 408개사(21.2%)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해 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 변경과 사업재편(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등 특별 결의 안건은 684개사(35.5%)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부족으로 부결될 수 있다고 상장사협의회는 우려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은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투표제를 채택해도 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자투표제의 접근성도 높고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사는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가계 대출수요 급감 은행채 발행 줄인다

시장, 은행채 순상환 추세에 주목

(주요 은행채 만기) (단위: 억 원)

구분	1월	2월	3월
전체	105,100	108,001	86,700
특수은행채소계	75,900	69,901	60,600
산업기업	51,000	39,600	28,900
수출입	6,200	11,600	3,800
농협	1,800	2,500	7,900
수협	1,700	0	1,900
시중은행채소계	24,600	36,800	23,700
신한	6,100	14,000	10,500
국민	3,000	8,000	5,000
하나	7,500	7,000	7,700
우리	8,000	7,800	500
지방은행채 소계	4,300	1,300	1,000
외국은행채 소계	300	0	1,400

(자료=한국투자증권)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난 1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가계부채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량수준과 증가속도가 높은 것이 분명하다. 특히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가까이 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월 금융통화위원회)

“꼭 막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돈 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자로 먹고 사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걱정이다. 외부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발행할 유인이 많지 않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A씨의 고민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다.

기업대출 시장도 사정은 좋지 않다. 산업은행이 국내 3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4.4% 줄고, 내년에는 6.3%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이유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서는 기피부서가 됐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가계 여신이 줄자, 영업성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대출 수요가 줄면서 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어낼 이유도 줄어들고 있다.

17일 은행권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2월 은행채 만기 규모는 10조 8001억원이다. 이중 산금채 만기가 3조 9600원으로 가장 많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은행채 만기가 각각 1조4000억원, 7800억원으로 많다.

3월 만기도 8조6700억원에 달한다. 산금채가 2조8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중은행채 만기는 2조3700억원 규모다.

시장에서는 은행채의 순상환 추세가 이어질지 주목한다. 지난 1월 은행채 발행 규모는 9조원 이상이다. 증급채가 2조원 이상 순발행됐다. 하지만 시중은행채는 대부분 순상환되면서 발행시장이 위축됐다.

한국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자산운용사와 은행중심의 은행채 투자수요가 꾸준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가계 대출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에 이른다. 조사대상 28개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에 이어 3위다. 지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약 15%)은 중국(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김민호 기자 kmh@

쉬운 대출 택할수록 신용회복 어렵다

대부업·사금융 이용 후 감당 어려워 법적한도 초과이자 징수 피해도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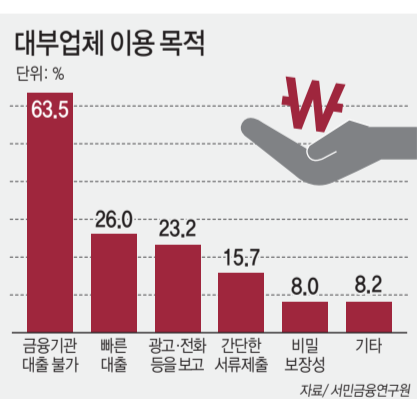
‘쉽고 빠른 대출’로 알려진 대부업체나 사금융업자를 이용할수록 차주의 신용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통해 중복 대출을 받는 대다수 차주의 경우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렵고,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7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말 대부이용자는 247만 3000명으로,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667만원 수준이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목적은 ‘빨리 대출해 주기 때문에’와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부광고 및 전화, 문자 등을 보고’, ‘서류가 간단해서’ 등의 응답비율이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해 빌린 돈은 주로 주거관리비 등 기초 생활비(64%)로 사용됐으나, 신용카드대금 등 다른 부채를 돌려막는데에 사용한다는 응답도 44%를 기록했다.

차주의 대부 신청이 거절된 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11.1~12.8%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고 답한 가운데 60대 이상에서도 15.7%의 차주가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18.2%)·무직(14.7%)·아르바이트(12.7%) 순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금융업자만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보통 중복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신용회복이 어려워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2곳(1.95개 업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2곳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률 또한 47.4%로 높게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 차주들이 겪는 가장 심각

한 피해로는 ‘법정한도 초과이자 징수’가 40.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전체의 16.8%가 원금 이상의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금융업자의 약 60% 정도가 법정 이자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금융을 이용한 차주의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응답비율이 0.8%에 그쳤다. 사금융의 특성상 신청 여건이 어렵고, 법원에서 사금융은 진정성을 의심해 인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44.7%가 개인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금융 이용 차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에서 서민금융의 역할과 미래’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준의 신용회복제도가 있으나, 여전히 차주의 채무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KB證 “환전 수수료 없이 해외주식거래”

‘글로벌 원마켓’ 통합증거금 서비스

글로벌 증시 상승세로 투자자의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 텐센트 등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주식 직구’는 새로운 추세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환전 서비스 등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KB증권은 연초에 출시한 ‘Global One Market (글로벌 원마켓)’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미국, 중국A, 홍콩, 일본 등 글로벌 5대 시장 주식을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특히 원(KRW), 달러(USD), 위안화(CNY), 엔화(JPY) 등 다양한 통화로 거래해야 하는 타사 통합증거금서비스와 달리 원화로만 거래해 고객 입장에서는 단일 통화시장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을 매도하고 중국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달러에서 원화로, 원화에서 위안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회당 0.5%~1%)가 두 번 발생한다. 반면 KB증권의 ‘글로벌 원마켓’을 통하면 환전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시점의 매매기준율(매수



·매도의 중간값)을 사용해 원화증거금을 징수하고 반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KB증권 자체의 FX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유 주식 매도 시 자동 환전된 원화예수금이 입금되어 자유롭게 시장교차 거래가 가능하고, 고객이 주문한 시점의 실시간 기준환율을 적용해 간밤에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한국보다 결제일이 하루 빠른 중국주식을 당일 매수하는 경우 결제일 차이로 발생하는 결제대금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글로벌원마켓’은 KB증권 휴트레이딩시스템(HTS) ‘H-able(헤이블)’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able(마블)’, 전국 영업점, 고객센터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손범지 기자

고용참사에 '화들짝'... 1분기 노인 53만명에 일자리

1분기에 87% 규모 앞당겨 공급
지난해 노인 14만명 구직활동에
전체 실업률 9년 만에 최고 기록
실업률 등 고용지표 영향 '주목'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에 노인 공공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직접일자리 예산이 약18%인 5752억원 증가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이 13만명 늘어났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 전체 재정 일자리사업 예산 22조9000억원 중 16.4%를 차지한다.

직접일자리가 공급되는 계층은 노인이 61만3735명으로 8220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여성(6만8464명), 장애인(1만9852명), 신중년(1만2500명)에게도 한시적 일자리가 제공된다.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취업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일자리는 1분기에 전체 규모의 87%에 달하는 53만5000명(누계)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작년 1분기에는 약 70%가량을 공급했던 것에 비교하면

조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1분기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공급을 대대적으로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고용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1월 고용지표에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미친 영향이 두드러진 바 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려 18만명을 조기 모집해 이 중 14만1000명을 채용했고, 이에 따라 그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했던 고령층이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같은 달 대비로 40만2000명 늘었다.

이중 취업자가 26만4000명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도 13만9000명 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자 수 증가 규모(20만40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60세 이상 실업자가 차지했다.

한편, 최근 반도체 업종의 고용감소 또한 전체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명 줄었다. 2017년 1월(-17만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그동안 구조조정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조선·자동차 업종의 취업자는 최근 들어 감소 폭이 축소된 반면 반도체 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지표 부진이 조선·자동차에서 반도체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말 미약하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던 제조업 고용상황은 다시 가파른 내리막을 걷는 모양새다. 반도체 고용 부진에는 기계설비, 공장 등 투자 조정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업종의 고용 위기라기보다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계속된 반도체 업종의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반도체 설비 조정 등의 영향으로 4.2% 감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와 어두운 전망도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세종=최신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삼성전자, 보유현금 100조

반도체사업 실적 호조 요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에 힘입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현금 보유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규모의 '현찰'을 보유하면서 설비·연구개발(R&D) 투자는 물론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세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삼성전자 보유 현금 보유액(연결 기준)은 총 104조2100억원으로, 전년말(83조6000억원)보다 무려 24.7%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현금 보유액은 기업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 정기에 금 등을 합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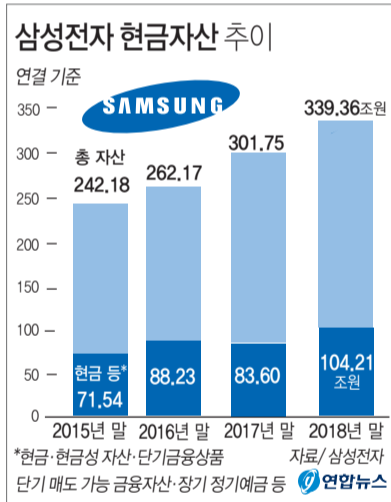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은 지난 1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274조9000억원)의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2위 상장사인 SK하이닉스 시총(53조7000억원)의 2배, 국내 2위 기업인 현대차 시총(25조8000억원)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해 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총자산은 연말 기준 339조3600억원으로, 1년 만에 12.5%나 증가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금에서 차입금을 뺀 순현금도 89조55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호조로 무려 44조3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게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아울러 지난해 시설투자액이 전년(43조40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29조4000억원 수준에 머물면서 지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역대 최고 실적으로 현금을 확보한



덕분에 배당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49.9%나 급증한 10조1900억원에 달하면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2017년 8조3500억원에 달했던 자사주 취득액은 8800억원에 그쳤다.

현금 보유액이 많다는 것은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 부진이 이어졌을 경우 자본 잠식을 막고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설비와 기술 투자를 통해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M&A를 통해 덩치를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풍부한 현금 여력을 토대로 해외 유력 반도체 업체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NXP, 자일링스, 인피니언 등에 대한 인수를 검토 중"이라면서 "실제로 인수가 이뤄질 경우 기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재용 기자 juk@

5년간 73.5% 증가... 늘어나는 고령자 車사고

“단순 운전제한보다, 이동권 확보에 초점을”

면허 자진반납 등 운전제한은
고령자 이동권 제약 주장 제기
공유승차제도 대안으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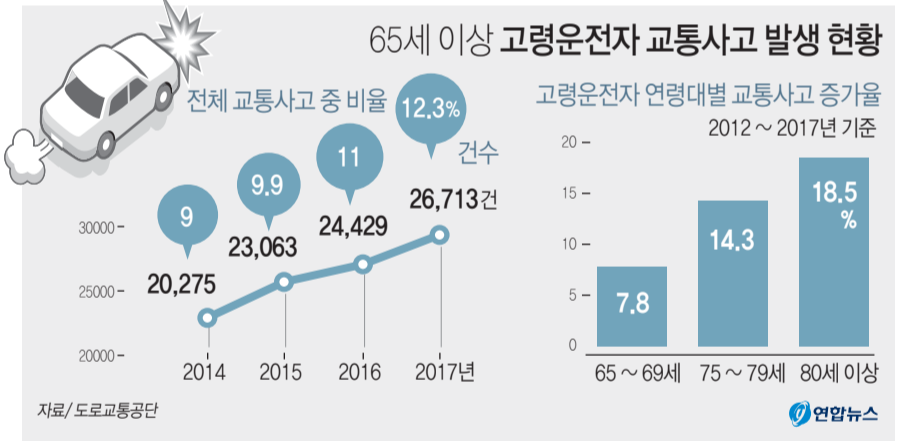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 있는 가운데 고령자 면허소지자가 늘면서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지리적·시간적 운행 범위를 제한하고 공유승차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검토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6만7000건에서 2017년 11만6000건으로 7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고 건수 고령운전자 유발하는 사고 비율은 2013년 5.96%에서 2017년 10.12%로 증가 추세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65세 이상 중상자 수 비율은 2013년 8.92%에서 2017년 15.0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사망자도 14.47%에서 20.02%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이 깊다. 2017년 기준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발생 비율은 10.1%로 65세 이상 인구비율 13.9%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543만명) 대비 2017년(717만명)의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인 32%에 비해서는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했다. 65세 이상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 면허갱신 시 고령운전자의 인지도



력을 진단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75세 이상부터는 의무화했고, 65세 이상부터는 권장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경남 창원, 진주 등에서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 양천구도 올해 1월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권유하고 있다.

이 같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 제한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도시를 제외한 일부 지역은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장보기, 의료 기관 방문, 노인 복지시설 방문 등이 어려워져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동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이동권 확보는 고령자의 건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를 감소시키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지리적·시간적 운전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유승차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시력검사, 주행시험, 주행시험 감독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주간 및 특정 지역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자동변속장치 등과 같은 운전 보조장치, 교정안경 및 렌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운전면허에 일정 제한을 두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공유승차제도를 운영 중이다. 노선버스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운행 횟수가 제한된 지역과 대형 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소형 승합차량을 이용해 택시처럼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탑승지점에서의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들도 다수 있다"며 "지역별 인구 연령 특성에 따라 고령자에 특화된 공유승차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고령운전자 건강상태와 인지능력에 따라 장거리 운행을 금지하되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근거리 주간운전을 허용하는 별도의 운전면허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9@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중기중앙회장 선거 D-10, 후보자 공약 키워드는

최저임금·동반성장·조합발전·일자리·4차혁명

(이재한)

(김기문)

(주대철)

(이재광)

(원재희)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 26대 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5명의 후보자들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지난 12일 대구, 15일 전주에서 각각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중기 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장 등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다.

특히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선 최대 접전지역인 서울·수도권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출입기자단이 주최하는 공개토론회가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어 28일 선거를 앞두고 접전이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17일 중기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기호 1번),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기호 2번),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기호 3번),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기호 4번), 원재희 프림파스트 대표(기호 5번)가 후보자로 나섰다.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재한 후보는 '강한 조합, 역동적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젊다는 점과 대정부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동결(업종·규모별 차등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 등 '7대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조합 이익을 옹호하겠다고 선거공고물에 각 조합별 현안과제도 제시해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제 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주요 공약

기호 1번 이재한 후보	기호 2번 김기문 후보	기호 3번 주대철 후보	기호 4번 이재광 후보	기호 5번 원재희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1년으로 회장 직속 조합민원실 설치 및 중기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부서 신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활력회 특별위원회' 설치 해외수출지원 전용 온라인 프리마켓 판로 플랫폼 구축 정부 주도 남북경협에 중소기업 의무할당제 도입(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소기업 4차산업위원회' 설치 및 산업 연수생 제도 부활 지역 중소기업 회장에 도입해 위상 강화 및 중기중앙회 참여 공식화 수익계약 2억원으로 상향·중기간 경쟁품목 확대·경기지방조달청 설립 건설하청 등 단순제조업 카르텔 허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수의계약제도 합리적 부활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각종 법·제도 정비 협동조합 플랫폼비즈니스구축지원금 조성 등 통한 판로 확보 중소기업 대학, 대학원(석·박사 과정) 설립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담은행 설립 및 협동조합 물류유통혁신센터 건립 국제청과 중기중앙회간 '세정위원회' 설치 제2·3개성공단 조성 및 남북경협위원회에 중소기업 참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중소기업 전용 인터넷 쇼핑몰 구축,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금 1000억원 조성 산업은행 기능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 북한 내수시장 판매 전용 제품 생산 산업단지 조성 조달품목, 대기업 납품단가 등에 업종·품목별 표준원가제정하는 '표준원가센터' 설립 스마트팩토리 범위 비제조업까지 확장

진해마천주물공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기문 후보는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당당한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8년간 회장을 역임한 '관록'을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두 차례 중기중앙회장을 맡으면서 중앙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등 '3불 정책'을 이슈화하는 등 동반성장 정책을 이끌어냈으며 '8년의 르네상스' 시절을 일일이 거론했다. 김 후보는 '당당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 등을 내놓았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주대철 후보는 '협동조합

의 플랫폼비즈니스 시대를 열겠다'며 중소기업 협동조합 분야에 정통한 '실무능력'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주 후보는 지난 두 차례의 지방 토론회에서 "누구를 위한 중소기업부인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쓸데없이 사진이나 찍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사이다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 후보는 15년간 한결같이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동조합의 결을 지켰다면서 개별 조합 관련 공약들도 두루 내놓았다.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광 후보는 '말보다 행동으로 절박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평사원

에서 출발해 기업 회장이 된 경륜과 리더십을 겸비한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 자리를 만드는데 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다면서 중소기업 일거리 위원회 설치 등의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이 후보는 적정 납품단가 보장,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적정 보상체계 마련, 대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등을 통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원재희 후보는 '중소기

업중앙회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조달, 생산, 유통, 서비스 및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해 지원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겠다고 제시했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8일 중기중앙회 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한다. 회장 임기는 4년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

55곳 추가 운영... 내달까지 모집

정부가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올해 55곳 추가로 만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주관기관을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창업지원 공간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국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350여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올해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52개소와 전문창작,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3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중기부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할 계

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 지역과 낙후 지역에 5개소 내외가 들어선다.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민간기관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관에는 사업비의 70%(일반형 80%) 이내에서 인테리어, 장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비용을 전문형 30억원, 일반형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올해 지방 중심으로 확산하고 부처 간 협력과 주관기관 간 교류를 강화해 공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5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설명회를 각각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中 정수기·비데 시장 추가 공략

주방욕실 전문업체 조무와 MOU 시간과 비용 절감·사업 경쟁력 강화

코웨이가 중국 정수기·비데 시장의 추가 공략에 들어간다.

코웨이는 중국 주방욕실 전문업체인 조무(JOMOO)와 상호 전략적 제휴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본격적인 전략적 제휴를 맺기에 앞서 사전 MOU를 진행한 것이다.

코웨이와 손잡은 JOMOO는 중국의 주방·욕실 브랜드 기업으로 9년 연속으로 현지 욕실 제품 판매 1위, 2018년 광군제 기간 동안 약 8억 위안(약 1360억원)어치를 판매하며 스마트 비데와 욕실 제품 카테고리 판매 1위 등 업계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뛰어난 연구개발과 제조 능력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서비스 센터도 보유



이해선 코웨이 대표이사(가운데)가 이지훈 코웨이 글로벌사업부부장(오른쪽), 린사오웨이 조무(JOMOO) 유럽미주센터본부장(왼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하고 있다.

이번 제휴 논의는 국내에서 선도적 환경 가전 기술을 보유한 코웨이와 중국 내 대규모 주방, 욕실 제품의 제조, 유통 및 서비스 인프라를 갖춘 JOMOO가 만난 것이다.

코웨이는 JOMOO와의 제휴가 최종성사되면 중국 시장에 적합한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 개발과 유통 및 서비스 구축 등

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중국 내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수기 시장은 지난해의 경우 317억 위안(약 5조2000억원) 수준으로 연 평균 15~20%씩 성장하는 등 잠재 성장률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매일 10돈 '황금돼지' 쏜다!"

'2019 운수대통 특집전' 시작

홈쇼핑은 황금돼지해를 맞아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경품 등을 제공하는 '2019 운수대통 특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전은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1명씩 추첨해 황금돼지 37.5g(10돈)을 증정한다. 또 특집전 기간 ▲건강·다이어트 ▲가전 ▲생활·인테리어 분야 제품 구입자들에게 다양한 경품 및 할인 적

립 프로모션도 펼친다.

우선 건강·다이어트 특집에선 오는 28일까지 행사 기간 관련 상품 구매고객을 추첨해 총 30명에게 각 100만 원의 적립금을 준다. 17일에 진행된 빨강석류즙, 유산균이야기를 비롯해 23일 국민비타민D 방송 등을 통해서다. 24일 진행하는 생활·인테리어 특집에선 상품 구매 고객에게 삼성카드 7%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벤트리 원목아일랜드식탁, 이누스 욕실시공 등을 행사 기간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여성벤처協, 창업 돕는 '케어 프로그램' 실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벤처창업 케어(car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5년차를 맞는 프로그램은 지원자 가운데 30명 정도를 최종 선정해 선배 여성벤처 CEO로부터 체계적으로 지도를 받아 창업을 돕는다.

지난해까지 관련 과정을 끝낸 예비창

업자 114명 중에는 95명이 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창업 3년차 생존률은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모습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창업캠프(1개월)→선배CEO코칭(3개월)→사업화과제 해결자금 지원(500만원)의 3단계로 구성된다.

협회는 우선 지원자 중 60명을 1차 선발해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비

즈플랜 경진대회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자 3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조, 정보기술(IT), 지식서비스 등 업종별로 구성된 여성벤처 선배CEO와 1대1 매칭을 통해 3개월간 밀착코칭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전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선 사업화과제 해결자금으로 수립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에 맞춰 특허출원, 시제품 프로토타입 개발 등을 통해 창업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승호 기자

“개알규제 여전... 그래도 샌드박스에 도전해 보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신청개수 대비 통과개수 미흡
협회차원서 샌드박스 신청해야”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최근 정부에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장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17일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및 디지털소통센터가 17일 공개한 ‘100개 회사에 100개 스토리-개알 규제들이 달라지나’ 주제로 진행된 장 위원장 인터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점수 관련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

/연합뉴스

“기대에 비하면 사실 미흡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게 일단 시도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

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에서 요청한 규제 사례를 전부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게 장 위원장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부처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도 곁들였다. 장 위

원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개선이 된다. (다만) 실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아주 자잘한, 개알 같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고 관련부처에 더욱 섬세한 규제 관심을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청와대에서) 약 200명의 중소기업계 인사가 모여서 대통령 행사를 했다. (당시) 더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했다”며 “왜 그런가, 회사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그중 반 이상은 다 ‘규제’ 얘기였다”고 설명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바다.

장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가급적 (규제 샌드박스 사례 신청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고, 일단 ‘규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규제 샌드박스로 도전해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게임인더스트리(산업) 관련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이러한 규제를 한 회사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2월11일, 4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2월14일, 3건)는 각각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당 대변인들이 선호하는 IT기기는?

“노트북 보단 휴대성 좋은 스마트폰”

더민주 이해식 아이폰+키보드
자유한국당 장애인 ‘삼성’ 폰+노트북
바른미래 김정화 갤럭시 노트 ‘펜’
민평 문정선 삼성+애플 ‘한미평화’

공식 성명이나 비공식 태도를 발표하는 대변인은 ‘정당의 입’이다. 중책인 만큼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명쾌하게 전달하고 언론 보도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실용성 있는 전자기기 사용은 필수다.

메트로신문은 17일 각당의 대변인이 사용 또는 선호하는 전자기기를 알아봤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이폰과 키보드만 있으면 어디든간다’... 이해식 대변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선 구청장 출신답게 전자기기도 효율적 기동에 특화했다. ‘노트북 따위 없이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서든 문제 없다’는 모양새다.

이 대변인은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X(텐)’을 쓴다. 이 대변인은 “화면이 작아 안경을 쓰고 봐야 한다”면서도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서 작성·수정 등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끝낸다.

대신 코시(COSY)의 블루투스 접이식 키보드를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한다. 그는 당 공보실에서 기기를 꺼내 보이며 “왔다갔다 돌아다니다 보니 노트북은 들고 다니기 버거워 사용하지 않는다”며 “들고 다니기 편한 간이식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 ‘전자기기도 보수’... 장애인 대변인

장애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삼성전자 애용자다. 다만, 오래 썼다. 장 대변인의 휴대폰은 지난 2016년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S7’이다. 오래 써



장애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오른쪽)이 본인의 ‘갤럭시S7’으로 필자(왼쪽)와 셀프 촬영하고 있다.

서인지 휴대폰은 곧 바꿀 예정이다.

장 대변인은 “카카오톡 용량만 현재 15GB”라며 “사진까지 포함하면 용량이 계속 넘쳐 곧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래도 삼성전자 애용자답게 올해 나올 ‘갤럭시S10’을 구입할 거라고 귀띔했다.

노트북은 5년째 삼성전자 ‘아이브 NT 910S3G’를 쓰고 있다. 그는 “노트북은 지난 2014년 출시 때부터 사용했지만 아직까진 쓸만하다”며 웃었다.

◆ ‘개혁보수의 힘은 펜에서’... 김정화 대변인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펜이 없으면 불안하다. 김 대변인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을 쓰는 이유다. 김 대변인은 “노트에 달린 펜이 너무 편해서 한 번도 노트에서 (기종들) 바꾼 적 없다. 펜이 없으면 안된다”며 기기 밑에서 펜을 꺼내들었다.

노트북은 LG전자가 지난 2014년 출시한 ‘그램 13’를 사용한다. 두께 1.36cm, 좌우 4.4mm 베젤, 마그네슘 소재의 얇으면서도 견고한 이 기기는 출시 당시 호평이 이어졌다. 김 대변인이 쓰는 이유도 역시 “가벼워 용이하다”는 것이다.

◆ ‘전자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휴대폰은 국산, 태블릿 PC는 미국 제품을 사용하며 한미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 노트북은 과감히 안 쓴다.

문 대변인의 휴대폰은 삼성전자 ‘갤럭시J7’, 태블릿 PC는 애플 아이패드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보급형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도 상당히 의외지만, 그만큼 보급폰도 프리미엄폰 못지 않는 것을 방증한다.

문 대변인은 “기기를 잘못 다뤄 한번 사면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며

“무거운 기기를 들고 현장을 다니기도 번거로워 가벼운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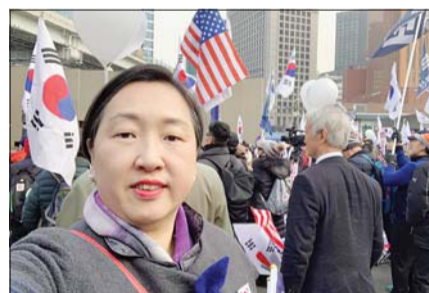
아이패드는 한 문서를 오랫동안 봐야 할 때나 메일 등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 ‘정의당 애플이’... 최석 대변인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본인을 ‘애플이(애플 추종자를 일컫는 말)’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지금까지 사용한 아이폰 시리즈를 여태 모아놓고 있을 정도다.

최 대변인은 “(아이폰이) 컴퓨터 호환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가장 쓰기 좋은 휴대폰은 국산 제품”이라면서도 “아이폰만 쓰다보니 배신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아이폰 8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

노트북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제 무기 중 하나는 블루투스 키보드”라며 로지텍 ‘k380’을 강력 추천했다. 추천 이유는 블루투스 기능이 3개나 있어 컴퓨터와 휴대폰, 태블릿 PC와 호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의당 애플이’ 최 대변인의 태블릿 PC는 삼성 갤럭시 탭이다.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의 아이폰 XR 셀프 촬영.

◆ ‘제품도 친미’ 애플 마니아... 인지연 수석대변인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도 10년째 애플 제품을 애용하고 있다. ‘아이폰 XR’을 쓰던 인 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기기를 물에 빠뜨려 현재는 아이폰 X를 쓰고 있다. XR 제품은 수리 중에 있다.

인 대변인은 “2·3세대 통신 서비스 시절부터 아이폰을 썼다”며 “꾸준히, 열심히, 소중하게 사용하는 유저”라고 말했다.

노트북도 애플 제품 ‘맥북 에어’를 쓰고 있다. 인 대변인은 “삼성전자 노트북도 있지만, 맥북이 좀 더 폼나서 삼성 노트북은 서버로 쓴다”고 했다. /식대성 기자 bigstar@

장성택, 1심서 ‘사형’... 허울뿐인 3급2심제

법으로 보는 북한

2심 신청엔 형량 느는 등 ‘불이익’
북한주민의 공개재판·사형 빈번

장성택 전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은 장소 없이 처형됐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2013년 12월 국가 전복 음모죄로 그의 사형을 선고했고, 형은 즉시 집행됐다. 5년 뒤인 2018년 2월,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9월 2심은 그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1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북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한번의 선고로 사형될 수 있다. 인민재판소·도재판소·최고(중앙)재판소가 있지만, 최고재판소가 1심을 진행할 수 있어 상소를 기대할 수 없다. 1심 관할 분배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제인 한국과 국제 기준을 한참 벗어난다.

◆ 최고재판소가 첫 재판... 사실상 1심제

북한 형사소송법상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최고재판소 관할에 없는 일반범죄사건을 맡는다. 도재판소는 인민재판소 관할 사건을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최고재판소도 어느 관할의 1심이든 직접 재판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는 군사범죄사건을 다루는 군사재판소와 군수공업 부문을 맡는 군수재판소로 나뉜다. 3급 2심제를 택한 북한에서 장성택 전 행정부장이 선고 한 번으로 사형될 수 있었던 이유다.

북한의 2심은 1심에 불복하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배상청구자가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항의’한다. 2심은 도재판소와 최고재판소가 진행한다. 도재판소는 도내 인민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 사건을 2심으로 다룬다. 최고재판소는 도재판소와 특별재판소 1심의 상소, 항의 사건을 2심으로 재판한다.

상소와 항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최고재판소 1심이 판결한 사건과 2심, 비상상소심, 재심 판결이 나온 경우다. 비상상소심은 법에 어긋난 확정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는다. 특히 북한 형사소송법 362조는



북한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서 있다. /노동신문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결을 내렸을 경우’를 판결 확정 요건으로 규정한다.

2심 신청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통일연구원의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2010년 3월~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재판 이후 상소를 포기했다. 그는 주변에서 ‘상소할 경우 형기가 10년 늘어났다’고 말려 2심을 포기했다. 2014년 8월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재판 받은 B씨도 1~2년이 예상되는 구류 기간 중 영양실조에 걸릴 것을 우려해 상소를 포기했다.

◆ 빈번한 총살에 참관 강요도

공개 총살 참관 강요 사례도 있다. 2016년 연구원 조사에서 탈북자 D씨는 2014년 8월 양강도 거주 당시 마을 주민 300여명이 운동장에 모여 공개처형을 봐야 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빈번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2015년 1월 이후 탈북한 주민 50명 중 34명(68%)이 공개재판으로 사형 선고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그 중 22명이 이런 재판을 3번 봤다고 했다.

공개재판 직후 사형이 집행된 상황을 본 응답자는 27명이었다. 이 가운데 15명은 이런 사형 집행을 3번 이상 봤다고 한다.

자의적인 사형제는 북한 주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 50명 중 25명은 김일성 일가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고 답했다. 한국 드라마 자료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당한다는 응답자는 12명이었다.

/이범종 기자 joker@

대학로에 공연예술센터 개관 서경대, 현장교육 리더 '우뚛'

‘복합예술 특성화 캠퍼스’
취업·창업 플랫폼으로 육성
연 12회이상 공연 진행 계획

서경대학교가 공연예술의 메카인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를 개관하고 ‘복합예술 특성화 캠퍼스’로 만들기로 했다. 정릉 캠퍼스와 연계해 예술분야 인재양성과 해당 분야 취업·창업 플랫폼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서경대에 따르면, 서경대 공연예술센터는 지난 15일 서경대 김성민 법인 이사장과 최영철 총장, 보직 교수,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서경대 공연예술센터는 융합예술 특성화 캠퍼스로 대지 1322제곱미터(400평), 건물 6280제곱미터(1900평)의 지하 5층, 지상 5층 총 10개 층 규모다. 500여석의 첨단공연장을 비롯해 스튜디오, 중극장, 소극장, 영상실습실, 무용실, 합주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갖췄다. 연극이나 뮤지컬,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뷰티서비스 등 각종 공연이나 이벤트가 가능한 문화예술공연 공간이다. 1층에는 버거킹과 커피미스트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대학 측은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개관을 계기로 정릉 캠퍼스 예술대학과 미용예술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연계해 예술분야 인재 양성과 공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개관식 /서경대학교

급, 산학협력이나 취업·창업의 새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경대는 이날 공식 개관에 앞서 서경대 디자인학부 졸업전시회와 실용음악학과 1회 졸업 공연을 여는 등 반년 가까이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경대 공연예술센터에서는 앞으로 1년에 12개 이상의 뮤지컬,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을 쉬지 않고 진행할 예정이다. 무대장치제작소도 별도로 건립해 디자인, 제작, 작화, 시연 등을 하는 레파토리 제작극단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또 서경대 뮤지컬학과와 정기 공연과 서경대 뮤지컬학과 출신들로 구성된 극단 ‘STUD

IO 134’의 공연이 상시로 이뤄지고 뷰티숍을 열어 서경대 출신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뷰티 테라피스트들의 뷰티숍 브랜드도 확장할 예정이다.

최영철 서경대 총장은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개관으로 정릉 캠퍼스, 남양주 연수원과 함께 21세기를 리드하는 현장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공연예술인 양성과 공연예술의 대중화,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경대는 예술대학 소속 실용음악학과, 공연예술학부, 영화영상학과, 음악학부, 디자인학부, 무용예술학과, 뮤지컬학과 등 7개 학과(부)와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등 미용예술대학 소속 2개 학과가 있다. 이들 예술분야 9개 학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실무현장과 동일한 프로덕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HUB)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특화된 명품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사회가 인정하는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서경대 관계자는 “서경대 예술대학이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는 K팝, K뷰티 등 한류예술 열풍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며 “실용음악, 모델, 연기, 뮤지컬, 공연예술, 영화영상 등 이른바 ‘스타학과’가 많고 현장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과 훌륭한 교수진, 우수한 교육 시설 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13일 동국대에서 개최됐다. /동국대학교

전국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장에 박은경 교수

동국대는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가 지난 13일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4대 회장으로 동아대 박은경 교수를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임 2·3대 회장은 동국대 김영민 교수가 역임했다. 새 회장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정기총회에는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비롯해, 경희대, 단국대, 세종대, 한양대, 숭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 전국

48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문대학 현안 전반에 대한 토론을 통해 ‘향후 인문학의 방향’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향후 인문학 발전과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전임 회장들과 역대 회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인문대학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문학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대정부·산업계 교섭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한용수 기자

‘3D 프린팅’으로 맹학교에 재능 기부

삼육대 생명과학과 4학년 임진환 씨

삼육대학교 학생이 졸업을 맞은 맹학교 학생들에게 3D 프린터로 흉상을 제작해주는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삼육대 생명과학과 4학년인 임진환 씨. 3D 프린팅 스타트업에서 설계사로 일하기도 하는 임 씨는 지난해 유튜브에서 맹인학생들에게 3D 프린터로 졸업앨범을 만들어주는 영상을 보게 됐다. 2014년 한 3D 프린팅 업체가 진행한 사업이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졸업앨범 속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임 씨는 자신의 기술과 회사 장비를 활용해 재능기부 형태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프로젝트 기획안을 이 회사에 제안하자 회사 대표도 흔쾌히 받았다. 임 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 맹학교에 제안서를 보냈고 한빛맹학교가 사업 취지에 공감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2학년 때 자동차공학(카메라트로닉스 학과)을 복수전공한 임 씨는 지난해 학내 창업지원단이 제공하는 3D 프린팅 교육



삼육대 생명과학과 임진환 씨 /삼육대학교

을 받아 해당 기술을 익혔다. 임 씨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활용하게 됐다”며 “스캔본 편집을 할 때는 인체해부학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했고, 설계 단계에서는 복수전공을 하며 익힌 공학적 사고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의수나 의족, 인공장기를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며 “장애인이 인체 한계를 넘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제품을 설계하고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이 꿈이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초등 방과후 영어 무산... 사교육시장 ‘들쭉’

초1~2 방과후 수업서 영어 제외
법안 국회서 표류... 학부모 ‘혼란’

초등학교 개학을 2주 앞둔 가운데 1~2학년 방과후 영어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 방과후 영어를 올해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사교육 초등 영어 시장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각 초등학교 1학기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되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선행학습금

지법에 담겨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론 반발 등으로 시행이 유예돼 지난해 3월 시행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도 추진했으나 학부모 반발로 결정을 1년 유예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취임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전격 허용키로 하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도 ‘놀이 중심’으로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영어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이 휩싸였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시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2월 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1학기부터 방과후 영어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용수 기자

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을 제외한 올해 1학기 방과후 수업 계획을 확정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은 대부분 강사를 채용해 이뤄지는데, 영어 수업을 위한 강사 채용에만 3~4주가 걸리고 수업 프로그램 구성과 준비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개정돼도 새 학기부터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설 영어 학원이나 영어 학습지 신청에 나서고 있다.

방과 후 영어 수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당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초등 영어 학원의 비용은 저렴한 곳이 월 10만원 안팎이고, 20~30만원대도 많다. /한용수 기자

서울사이버대, 학·석사 1671명 배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소재 본교 캠퍼스에서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만 72세의 최고령 김가연, 박희봉 씨가 노인복지학과 학위를 받았고, 만 19세 최연소 임영서 씨가

경영학과 학위를 받는 등 총 1671명이 학사(1634명)와 석사(37명) 학위를 받았다. 서울사이버대는 이로써 2000년 개교 이래 이번 졸업생을 포함해 학부 총 3만 3395명, 대학원 총 656명을 배출했다. /한용수 기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졸업생들에게 아섹 포토 이벤트를 매년 개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신학기 대비... 8.5만개 교육시설 안전점검

교육부 4월19일까지 안전대진단

교육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전체 교육기관 시설물 8만5000여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과 안전대진단 대상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와 옹벽, 대학실험실 등이다.

특히 신학기를 대비해 기숙사와 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과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을 자체점검, 기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 대상으로 구분한 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의 점검 내용에 따라 진행된다.

D·E 등급의 재난위험시설, 중요(위험) 대학실험실,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지진발생 지역 구조체 피해 학교 등에 대

해서는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이 이뤄지고,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중 민관합동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기관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나머지는 시설물 관리자의 자체점검이 이뤄지고, 교육부는 자체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표본을 정해 점검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의 위험 해소를 위해 내실있고 철저한 진단이 되도록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안전대진단이 시작되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중학교를 방문해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www.pdna.co.kr

다시 어린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새롭게 태어나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피 디 엔 에 이 크림 & 세 럼

-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찢어질 듯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원인. 바다 송어의 물찬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수분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언제였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병풀추출물, 여성초추출물, 치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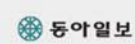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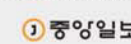


피부탄력개선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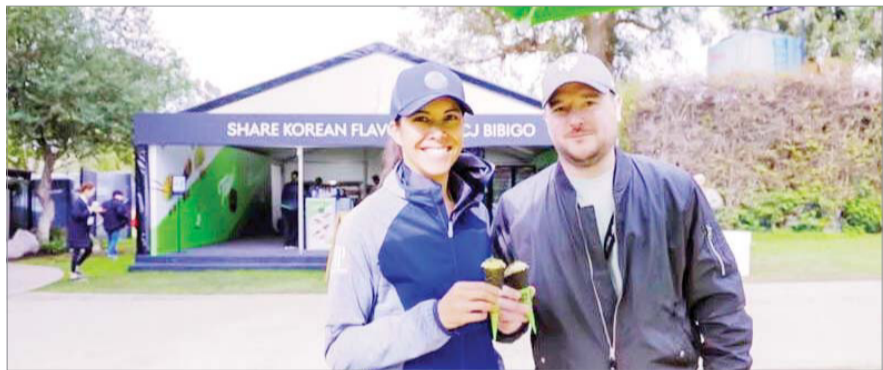
예보, 우리금융과 캄보디아 가족 초청 문화나눔행사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6일 캄보디아 가족 초청 문화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이 두 나라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간 교류의 장, 두 나라 문화예술 공연, 코리안드림을 이룬 캄보디아 이주여성 스톤피아비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결의대회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노·사·민·정이 함께한 이번 결의대회는 지역사회에 안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국정운영목표인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안전보건공단



NH협은행, 정구팀 창단 60주년 기념행사 NH협은행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농협대학교에서 정구팀 초창기 일원인 위명숙 선수를 비롯한 80여명의 은퇴지도자, 은퇴선수를 초청해 스포츠단 창단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대훈 NH농협은행장(두번째줄 오른쪽 다섯번째)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은퇴지도자 및 은퇴선수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감사패 전달과 정구선수단의 축하 공연 등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NH협은행



CJ제일제당 '비비고' PGA투어 공식 후원 CJ제일제당이 '비비고'를 앞세워 세계적인 골프대회 PGA 투어에 참여해 한국 식문화 확산에 본격 나섰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대표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올해 개최 예정인 주요 PGA 대회에 공식 후원 브랜드로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 PGA 대회를 통해 미국 현지에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 식문화를 알리기 위함이다. /CJ제일제당



풀무원푸드앤컬처, 송파구청에 모금 후원물품 기탁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서울시 송파구 소외이웃을 위한 '희망은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활동에 나섰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지난 15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송파구청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후원 물품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풀무원 식품 후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오른쪽)과 이우봉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부모의 진로교육이란



김민 소장의
당탕평평

봄이 가까워지면서 다음 달 초부터 돌아오는 가을, 겨울까지 강연 섭외가 심심치 않게 오고 있다. 전국의 기업체, 지자체, 종합병원, 대학, 공무원연수원, 인재개발원 등은 필자가 자주 강연을 가는 곳들이다.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중·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등 교육기관 강연의 비중을 오래 전부터 어느 정도 두고 있는 게 필자의 입장이다. 시간과 수입만 생각하자면 교육기관 강연은 매력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걸 알면서도 지속하고 있다면 필자는 교육에 대한 열정 아니면 바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를 다니며 학부모 대상 진로강연과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강연은 다년 간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다녔다. 그런데 얼마 전 새해 첫 학부모 대상 강연으로 지방의 한 교육청에서 연락을 받았다. 역시 자녀와의 소통과 부모로서의 진로교육에 관한 주제였다. 셀 수 없이 많은 강연을 다녀지만 문득 진로교육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의문이 생겼다. 적어도 백만 이상을 그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말이다. 한 인간의 진로에 대해 조언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할 수도 없으며 무책임한 말을 내뱉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로 강연 시간만 채워서도 더더욱 안 될 일이

다. 삶의 여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방황하는 것은 사실 성인들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나 의사 같은 특정 직업군이 아닌 이상 적잖은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누구나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가 있다. 자녀의 적성과 감성 및 수학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인들의 관점에서 소위 세상에서 폼 나는 직업 몇 가지를 정해놓고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기대와 강요를 반복하곤 한다. 각자가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자. 혹시 내가 그런 부모는 아닌지 말이다. 컴퓨터에 CPU라는 것이 있다. 구태여 해석하자면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이다. 즉 컴퓨터의 전반적인 성능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도 각자의 CPU가 있다. 그것은 노력으로 바뀌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자녀의 CPU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다방면에서 최고의 성능을 기대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들의 보편적 사고이다. 자녀들의 CPU는 결국 부모들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아이들의 생활에 항상 과부하가 생기니 성격장애, 인격장애, 탈선, 폭력, 대인관계 등 많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필자와 같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사람들도 적잖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알팍한 이론상의 지식이나, 넓고 깊이는 없는 게란지만 같은 인터넷 지식으로 아무말 대

잔치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 정서는 모든 일에 만능인 사람만을 요구한다. 4차산업을 대비해 창의적 인재, 융합형 인재 등 많은 단어들은 잘도 만들어내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두루두루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기성세대와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가에 대해 솔직해보자.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이 아니라 환경이다. 그리고 그 환경은 결국 우리 기성세대들이다. 필자에게도 세 명의 아들이 있다. 내가 잘했던 것을 내 아들이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녀석들 각자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며,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다. 진로 교육이나 진로강연을 한다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못 본 것을 마치 자신의 경험 마냥 은근히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강연을 적잖이 접하면서 씁쓸하다 못해 불쾌한 심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이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우리 아이들 각자가 어느 정도의 CPU를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로서 냉정히 받아들이고, 그 아이가 지닌 CPU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들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우리 자녀들의 CPU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만큼을 발휘할 환경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과부하만 부추기는 것이 결국 부모교육의 가장 큰 폐단이다.

/테일러폴리 정책연구소장

LG디스플레이, 저소득층 영재 청소년 후원

‘희망날개클럽’ 꿈 발표회
예능·이공계 80여명 참석

LG디스플레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는 영재 청소년들을 위해 ‘희망날개클럽’ 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파주사업장에서 양재훈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장 부사장,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을 비롯해 예능·이공계 영재 청소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날개클럽’ 꿈 발표회를 개최했다.

희망날개클럽은 음악, 미술, 이공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임원들이 매년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난 15일 양재훈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장 부사장(왼쪽)이 희망날개클럽 후원 청소년에게 공기청정기를 전달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후원을 받은 17명을 파주 사업장으로 초청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미술 작품 전시, 판소

리·성악 공연 등 그간 키워온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발표회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미래 꿈을 응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인사

-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구영민 △국제협력과장 박용주 △디자인심사정책과장 문창진 △특허심사기획과장 신상근 △특허심사제도과장 박재훈 ◇과장급 승진 △등록과장 이승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장현근 신현철 전선웅 강원길 손병철 정기주 오상진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담당관 박현희 △지역산업재산과장 윤종석 △디자지구팀장 여인홍 △상표심사3과장 이익희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 백영란 △주거기반심사과장 이영민 △정밀부품심사과장 한덕원 △국제교육과장 정대순
- ◆중앙대학교의료원 ◇임상교원 보직 △부원장

- 신종욱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겸 국제진료센터장 한덕현 △성형외과 과장 배태희 △이비인후과 과장 겸 적정진료관리실장 문석균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오도훈 △신경과 과장 겸 기획 및 전산정보담당 박광열 △재활의학과 과장 강시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분과장 최재철 △새병원건립추진단 부단장 정용훈 △대의협력실장 최유신 △진료담당 이승은 △의무기록실장 김지택 △내과 계층환자실장 김원영 △유방클리닉실장 김민균
- ◆병무청 ◇서기관 승진 △청장실 하성일 △기획조정관실 김인환 △운영지원과 민선기 △병역자원과 임준모 △사회복무과 김점섭 △병무민원상담소 도명근
- ◆MBN △제작본부장 박태호

부음

- ▲이명호(한국여자농구연맹 전 사무국장)씨 별세 = 1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18일 13시 20분. ☎ 02-3010-2000.
- ▲손병기 씨 별세, 손정배(문화일보 부국장 겸 편집부장) 씨 부친상 = 16일 오후 4시, 순천향대 구미병원 장례식장 특분향소, 발인 18일 오전 9시. ☎ 054-464-4444
- ▲신순선씨 별세, 신현승(전 KEB하나은행 부행장)·신혁승(숙명여대 교수)씨 부친상, 이정미(전 헌법재판관)씨 시부상, 조인호(전 대전지방법원장)씨 장인상 = 16일 오전 1시1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18일 오전 6시30분. ☎ 02-3010-2230

“추억을 먹고 마신다” 식품업계, ‘뉴트로’ 제품 출시 붐

(New+Retro의 합성어)

2030 젊은 세대, 7080 문화에 열광
복고 트렌드로 소비자 구매욕구 자극

식품업계가 다양한 복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뉴트로(NEWTRO)’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20대부터 30대 초반 젊은층이 7080 문화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트로에는 ‘새로운(New)’와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젊은 세대가 익숙하지 않은 옛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서울우유의 역사를 보여주고 밀레니얼 세대의 감성을 겨냥한 ‘서울우유 밀크홀 1937 레트로컵’ 3종을 출시했다. 옛 감성을 그대로 담은 레트로 굿즈 ‘서울우유 밀크홀 1937 레트로컵’은 과거 서울우유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제작된 컵을 모티브로 하여 재현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80여년 역사 중 상징적인 연도를 선정하고 그 해 제작된 프로모션컵에 새로운 감성이 덧입혀 제작했다. 이 제품은 유리병으로 서울우유를 마시던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향수를, 젊은 층에게는 세련되진 않지만 새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PC삼립이 지난 1980년대 출시했다가 단종된 ‘우카빵’과 ‘떡방아빵’을 재출시했다. SPC삼립은 1980년대 출시되었던 히트 제품에 현대적인 감성을 반영한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1984년 출시한 ‘우카빵’은 빵 속에 우유 커스터드 크림을 넣은 제품이다. 이번엔 내용물에 크림을 추가해 부드러운 고소한 맛을 더욱 살렸다. 1989년 출시했던 ‘떡방아빵’은 빵 안



서울우유 밀크홀 1937 레트로컵(왼쪽)과 남양 3.4 우유맛 스틱. /서울우유협동조합·홈플러스

에 찹쌀떡을 통째로 넣어 쫄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삼양식품은 신제품 ‘튀김칼국수’를 내놨다. 튀김칼국수는 전통시장 대표 음식인 칼국수에 튀김고명을 얹어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멸치와 대파를 우려낸 갈고름고깃국물에 튀김을 고춧가루로 버무린 ‘매콤 튀김후레이크’를 넣어 칼칼한 맛을 더했다. 패키지는 7080년대를 연상시키는 서체를 적용한 복고풍 디자인

으로 뉴트로 컨셉을 강조했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의 맛을 젊은층에게는 새로운 맛을 전해주며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업계도 뉴트로족을 겨냥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추억의 자판기 우유 맛과 함께 복고풍의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남양 3.4 우유맛 스틱’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1980~90년대 동전 몇 개로 즐길 수

있었던 자판기 우유 맛을 재현한 상품이다. 30대 이상 세대에게는 학교나 길거리, 군부대 등에서 마셨던 추억까지 떠올리게 하고 10~20대 소비자에게는 달콤한 맛과 함께 우유를 만들어 마시는 새로운 경험도 제공한다. 특히 남양우유의 초창기 대표 상품인 ‘남양 3.4 우유’의 제품 패키지를 적용해 눈길을 끈다. 과거 마스코트였던 코끼리 캐릭터와 함께 사용했던 색상과 글씨체까지 재현했다.

편의점 CU는 지난해 1980년대 음료 ‘따봉’을 리메이크한 ‘따봉 제주감귤’, 막대얼음에 과일맛을 첨가한 얼음과자 ‘HEYROO 아이스계끼’ 등 추억의 먹거리를 재해석한 상품을 선보였다. ‘따봉 제주감귤’의 지난해 매출 중 약 48.0%가 20~30대 소비자였다. ‘HEYROO 아이스계끼’ 역시 매출의 약 42.7%가 30대 이하의 젊은 소비자들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뉴트로 문화가 유행하며 업계에서도 출시한 지 오래된 상품을 리뉴얼하거나 복고 컨셉의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metroseoul.co.kr



정월대보름 앞두고 부럼 준비하세요
정월대보름을 앞둔 17일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찾은 시민들이 호두, 땅콩 등 부럼용 견과류를 살펴보고 있다. ‘부럼 깨기’는 정월 대보름날(음력 1월 15일) 이른 아침에 한 해 동안의 각종 부스럼 예방과 건강 등을 기원하기 위해 밤, 호두, 잣 등 견과류를 어금기로 깨우는 우리나라 풍속이다. /연합뉴스

유통 단신

애경산업 샤워메이트

‘글램 퍼퓸 바디케어’ 출시

애경산업의 토탈 바디케어 브랜드 샤워메이트는 향수를 뿌린 듯 온 몸을 향기롭게 관리할 수 있는 퍼퓸 바디케어 ‘글램 퍼퓸’ 라인을 17일 출시했다.

샤워메이트 글램 퍼퓸 라인은 애경산업 향연구소의 조향기술로 개발된 향을 더해 씻고 바르는 것만으로도 향수를 사용한 듯 몸 전체를 향기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바디워시, 로션, 비누 등으로 구성됐다. /김민서 기자



조식푸드

‘요기요’ 반값 이벤트 진행

조식푸드가 운영하는 ‘조식떡볶이’가 오는 28일까지 점심 시간대에 ‘요기요’를 통해 주문하는 고객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의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요기요 앱의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조식떡볶이 50%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쿠폰은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트레이더스 인기 상품, 이마트에서 만난다

이마트-트레이더스 ‘e-T’ 프로젝트 1등 상품 3종 판매… 매장 경쟁력 제고

트레이더스의 최고 인기상품을 이마트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마트가 ‘e-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트레이더스 1등 상품 3종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e-T 프로젝트는 트레이더스의 인기 상품을 이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신상품을 공동으로 기획해 개발하는 이마트-트레이더스 간 협업 프로젝트다.

이번 e-T 프로젝트 상품은 ‘세타필로션’, ‘비트 액체세제’, ‘하리보 골드베렌 젤리’ 등이다.

세타필로션(591ml*2+29ml*2)은 트레이더스 로션 부문 매출, 판매수량 1위 상품으로 2018년에만 8만개 가량 판매되며 2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 히트 상품이다. 지난해 트레이더스에서 83.1%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으로, 591ml들이 동일 브랜드 제품을 날개로 구매하는 것보다 25% 이상 저렴하다.

비트 액체세제(5L)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10만 개가 넘게 판매된 1등 상품이다. 5L 대용량으로 단위 용량당 가격이 소용

량 대비 25% 가량 저렴한 뿐 아니라 일반 /드럼세탁기 겸용으로 쓸 수 있어 범용성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하리보 골드베렌 젤리는 2018년 약 30만개가 판매됐다. 특히, 온라인 상으로 판매된 젤리 중 20%가 하리보 골드베렌 젤리 정도로 온라인 물에서 인기가 높다.

이마트가 트레이더스 1등 상품을 이마트에서도 판매하는 것은 우수한 경쟁력의 트레이더스 상품을 이마트 소비자들에게도 제안하는 한편, 이마트의 점포망을 활용해 트레이더스 우수 상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이마트가 지난 1월 선보인 1차 e-T 프로젝트 상품은 완판을 이어나가며 집객 및 매출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NEW 더 에어프라이어 플러스’는 이마트 판매개시 3일 만에 준비물량 1만대 중 60% 가량이 판매된 데 이어 2주일 사이 기획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인기를 입증했다.

해당 상품은 2018년 트레이더스 대표 히트상

품으로 8만4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과 5.2L의 넉넉한 용량, 편리한 디지털 조작 방식 덕분에 에어프라이어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의 선전에 힘입어 이마트의 1월 주방소형 가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했다.

‘젤리스트로우(1.54kg)’도 기획 물량이 완판되며 행사 기간 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 1월 3일부터 9일까지 1만 7000여 개가 팔려나가는 등 트레이더스에서 보름간 판매할 물량이 일주일새 판매된 바 있다.

이마트는 향후 트레이더스와의 공동 상품기획·개발을 통해 신상품을 내놓는 한편,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L&C몰 오픈… 상담부터 A/S까지 원스톱 인테리어

100여종 판매… 원하는 날 시공 가능

현대L&C가 창호·벽지·바닥재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공식 온라인몰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는 무료 상담부터 구매, 시공 예약, A/S 신청 등이 가능한 원스톱 인테리어 쇼핑몰 ‘현대L&C몰’을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창호, 중문, 바닥재, 벽지, 주방가구, 식탁, 매트리스 등 100여종의 현대L&C 제품을 판매하며, 판매하는 전 제품은 주문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원하는 날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시공 이후 1년의 무상 A/S를 제공한다.

특히 분사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스마트인테리어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측과 시공이 필요한 창호·중문·바닥재·벽지·주방가구 등 5개 품목을 견적 상담부터 구매, 시공까지 한번

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단일 품목 혹은 두 품목 이상의 패키지 구성도 가능하다. 무료 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현대L&C몰’에서 신청만 하면 되며, 컨설턴트 방문 후 계약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대L&C는 이번 온라인몰 오픈을 기념해 3월 15일까지 전 품목을 5~30% 할인 판매하고, 회원 가입 고객 대상 5%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40년 만에 본점 개혁... 롯데百貨, 리빙관 매출 67% '쑥'

유럽의 로얄 코펜하겐·덴비 등 8층 리빙관에 '최상급 브랜드' 오픈 20일동안 매출 1억 성과

롯데백화점이 40년만에 본점 개혁에 나선 가운데, 첫 번째로 베일을 벗은 '리빙관 1공구'가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리뉴얼을 완료한 본점 8층 리빙관 주방·식기 카테고리(1공구)는 최상급 브랜드들과 구색으로 주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본점의 리빙관 1공구는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1만 명이상이 방문했고,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66.7% 신장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덴마크 왕실 식기 브랜드 '로얄 코펜하겐'은 매출이 약 197% 신장했고, 영국 고급 식기 브랜드 '덴비'의 신장률은 162.4%로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약 2.6배 늘어났다.

새로 전개한 브랜드들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최초로 선보인 주방·식기 편집샵은 오픈 이후 20일 간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스페인 명



롯데백화점 리빙관 1공구 오픈 더 웨이브 행사.



롯데백화점 본점 리빙관 1공구 전경.

/롯데백화점

로에는 고객들을 위한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브랜드 위주 백화점 매장형태에서 벗어나 고객 맞춤형 아이템 편집이 가능한 '키친웨어 편집존'을 구성해 최근 고객들이 선호하는 라이징 아이템인 '우드 키친툴', '커트러리(은기류 테이블 세트)', '아이디어 주방용품' 등 재미있는 아이템 전문 코너도 구성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유행택 본점장은 "본점 리뉴얼의 첫 시작인 주방·식기 카테고리를 준비하면서 고객들이 끌릴 수밖에 없는 다양한 고급 브랜드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19년 말 완료될 8층 리빙관부터 식품관까지 이어질 본점의 변신은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본점 리뉴얼은 올해 리빙관을 시작으로, 2020년 식품관, 2021년 여성/남성관, 2022년 해외패션관으로 4개년간 진행된다. 가장 먼저 리뉴얼이 들어가는 리빙관은 지난 해 11월부터 현재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돼 앞서 1월 24일 주방/식기 카테고리(1공구)를 오픈했으며, 오는 19년 11월까지 최종 공사를 마친 후 2020년 오픈 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품 도자기 브랜드 '야드로(Jadro)'는 3000만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아울러 주 소비층인 주부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 독일 유명 주방 용품 브랜드 'AMT'와 독일 명품 주방 칼 브랜드 '헥켈'과 함께 요리 시연회를 진행, 좋은 성과를 거뒀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말까지 5개 공구로 구성된 8층 리빙관 리뉴얼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점 리뉴얼의 첫 단추인 '리빙관'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리빙 시장을 겨냥해 씨어터형 공간 연출과 함께 체험

형 매장을 결합한 'Play at Home-리빙'에 재미를 더하다'는 컨셉으로 꾸며진다.

본점 8층 리빙관 4752㎡(1440평)와 7층 643.5㎡(195평)를 확장해 총 5395.5㎡(1635평)의 리빙관을 조성하며 '극장의 돛 천정'을 형상화한 대형 '아레나(Arena)'와 극장의 스테이지(Stage)를 연상하게 하는 '프로세니엄 아치' 그리고 다양한 상품의 교체가 가능한 플렉시블 집기를 도입할 방침이다.

리빙관에는 기존 대비 70% 가량 늘어난 약 200여개의 리빙 브랜드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리빙관' 특성에 맞춰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고객들을 위한 공간들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 리빙관 전체 면적의 10%를 휴식공간으로 배치한다.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LG OLED터널'과 스피커와 VR 기반으로 작동하는 가상체험 모델링인 '삼성 IoT관' 등이 입점해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체험하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홈스타일 카페'가 50평 규모로 입점하고, 신관과 본관 연결 통

강스템바이오텍, '퓨어스팀' 독자개발

3상 투여 마무리... 개발 가속화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중인 아토피치료제를 단독 개발로 전환한다. 사업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치료제 '퓨어스팀'의 대응계약 공동개발 계약이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강스템바이오텍과 대응계약은 제대혈 유래 동종 줄기세포치료제인 '퓨어스팀'의 국내외 판권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강스템바이오텍이 대응계약과 합의에 의해 '퓨어스팀 AD주'를 계

약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퓨어스팀 AD주'는 강스템바이오텍에서 독자개발을 진행해 왔고 지난해 말 3상 투여를 마무리지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올해 하반기 임상결과가 나오는데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강스템바이오텍 이태화 대표는 "이번 계약 변경으로 빠른 시일 내에 '퓨어스팀 AD주'에 대한 향후 국내 판권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사업 주체가 명확해진 만큼 강스템바이오텍 주도로 해외 기술 수출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색조 화장품 브랜드 '스톤브릭' 출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스톤브릭 홈데저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스톤브릭은 다채로운 색상을 재미있는 블록 형태로 구현한 신규 색조 화장품 브랜드다.

/연합뉴스

신세계 '카페사장님' 꿈꾸는 청년 전폭지원

센트럴시티에 '청년커피LAB' 마련 6개월 운영 후 원하는 상권서 창업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 사업가 지원에 나선다.

신세계 센트럴시티는 항상 고객들의 발길로 북적이는 서울 고속터미널 파미에스테이션에 '청년커피LAB' 공간을 마련, 이곳에서 꿈을 펼쳐갈 청년 창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만 20세~39세까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6개월간 실질적 카페 운영 경험을 두루 할 수 있게 된다.

카페 운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청년 사업가는 영업을 통해 마련한 자본금을 토대로 이후 원하는 상권에서 실제로 창업을 하는 방식이다.

신세계 센트럴시티는 선정된 청년 사업자에게 20여평(약 66제곱미터) 매장 공간은 물론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과 커피 머신 등 영업 장비를 모두 지원한다.

청년커피LAB 운영 후 청년 사업자가 실제 창업 시 창업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권 및 입지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브



파미에스테이션 전경.

/신세계백화점

랜드 로고와 매장 디자인 컨설팅도 지원해 청년 사업가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한다.

신세계 센트럴시티는 비용뿐 아니라 한국커피협회와 손잡고 커피 머신과 원두 품질관리, 매장 운영 멘토링, 위생, 서비스 등 실질적 카페 운영 노하우도 전수해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다.

실제 신세계센트럴시티 전 직원은 바리스타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전 임직원이 교대로 청년커피LAB에서 함께 근무하며 청년 창업자를 지원 사격한다. 오는 21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모든 혜택이 실제로 미래 청년 사업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인 명의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사업 계획 등 1차 서류심사로 10여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바리스타 능력 등 2차 면접과정을 통해 2월 말 청년커피LAB을 운영할 최종 1인이 탄생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 사업가는 본인이 원하는 팀(바리스타 등)을 꾸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

신세계센트럴시티는 이 공간을 청년 창업자 지원 공간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청년 창업자들을 배출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커피LAB이 자리잡게 될 파미에스테이션은 4500여평 면적에 10개국 30여개의 식음 브랜드 51개를 모아놓은 국내 최고의 맛집 클러스터로 국내 상업시설 중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한다.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값진 사업 노하우를 얻게 된다.

신세계센트럴시티 박주형 대표이사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영업 공간을 마련해주고 사업 노하우도 전달하는 뜻 깊은 기회를 만들게 됐다. 청년들이 실제 창업을 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2018년 aT 센터에 마련된 GS25 상품 전시회 입구.

/GS리테일

"올 GS25 편의점 상품 미리 체험하세요"

19일부터 '2019년 상품 전시회'

GS25는 '2019년 상품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GS25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서울·수도권·중부·호남지역 경영주와 함께하는 상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27일~28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지역 경영주와 함께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GS25 상품 전시회는 전국 1만3000여개 점포의 2만

여명 경영주와 250여개 국내외 협력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GS25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동종업계 기준 국내 최대 규모 행사다.

전국 가맹점은 올해 예상되는 편의점 상품 트렌드를 미리 체험함으로써, 히트예감 상품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품을 도입하고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점포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삼성전자, 국제기능올림픽 韓 국가대표 후원

2007년부터 7개 대회 연속 후원

삼성전자가 오는 8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한국 국가대표팀을 후원한다.

삼성전자는 16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후원금 7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서 열린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 입소식 및 국제지도위원 합동 워크숍'에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국가대표팀을 7개 대회 연속 후원하게 됐다. 2006년 고용노동부와 '기능장려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국가대표가 대상이다.

올해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는 국내 선수는 47개 직종 52명이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기능올림픽 장동섭 사무국장(왼쪽)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김동만 회장. /삼성전자

전기, 중공업, 바이오로직스 등에서 15개 직종 직원 19명을 국가대표로 배출해냈다.

삼성기능올림픽 장동섭 사무국장은 "대회에서 갖고 닦은 기량을 자신있게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국제대회 도전을 시작으로 그 이상의 목표와 꿈을 키워 미래 인재로 키나가길 바란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석화業 미세먼지 저감 앞장서야



기지 수첩

김 유 진
(산업부)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번 법안을 내놓게 되면서 다음 날 예보가 미세먼지 '나쁨'이라 해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감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자동차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석유,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들도 향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가동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손을 걷자 석유화학업계도 이에 동참한다.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석탄화력발전소와 4개 정유사 등에서는 연간 국내 배출량 17%인 33만6000여

톤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선 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는 황합유량이 적은 석탄을 사용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제조업은 미세먼지 방지시설에 약품투입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공단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없어 단속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세먼지 저감은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할 만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뇌, 심장질환까지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은 미세먼지의 주 성분으로 꼽힌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이 이산화황 수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 만큼 유해한 물질을 뱉어내는 석유화학업계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누구보다 앞장설 필요가 있다. 정부의 협조를 넘어서 업계 차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ujin6326@metroseoul.co.kr

기아자동차 “14년간 車 6000대 팔았다”

정승주 영업부장 ‘그레이트 마스터’ 임명

기아자동차의 '판대왕' 정승주 영업부장이 누계판매 6000대를 달성했다. 정승주 영업부장은 14년 연속 판매왕을 기록 중이다.

기아차는 15일 BEAT360(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에서 누계판매 6000대를 달성한 망우지점 정승주 영업부장을 '그레이트 마스터'로 임명하고, 표창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그레이트 마스터'는 누계판매 6000대 이상을 달성한 우수 판매 직원에게 부여하는 명

칭으로, 영업 위상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아차가 마련한 명예포상제도이다.

1994년 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한 후 1999년 영업직으로 전직한 정승주 영업부장은 2006년 이후 14년 연속 기아차 판매왕 자리를 지켜왔으며, 연 평균 300여대 이상의 판매대수를 기록 중이다. 특히 정 영업부장은 2018년에 전년도 판매대수 대비 84% 증가한 767대를 판매함으로써 누계판매 6000대를 달성했다. 정승주 영업부장은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기아자동차의 그레이트 마스터로 임명된 정승주 영업부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기아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60년생 가족도 항상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72년생 나의 격려가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된다. 84년생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면 만회하기 힘들다.
- 소** 49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걸 명심. 61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 참석하니 마음이 불편할 것. 73년생 남의 충고를 가버어 여기지 마라. 85년생 길이나니면 가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 호랑이** 50년생 인수 운이 있으니 계약이나 문서로 이익이 있다. 62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74년생 계획도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 크게 실패하기 쉽다. 86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열렸다.
- 토끼** 51년생 욕심을 버리면 일이 쉽게 풀린다. 63년생 가화만사성이니 가족의 편안을 먼저 챙겨야 한다. 75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낭패를 보게 된다. 87년생 옳은 일이라면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행하라.
- 원숭이** 52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남의 원성을 받을 수 있다. 64년생 가까운 사람 일수록 잘 챙겨야 한다. 76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노출할 필요는 없다. 88년생 수고로움은 크고 돌아오는 실속은 없으나 실망마라.
- 뱀** 53년생 쇠퇴하는 시기가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65년생 매사에 부드러운 소리를 포용하라. 77년생 일의 진행 상태를 철저히 살피고 대처. 89년생 사방에 공연한 말이 많으니 항상 주위를 살피라.

- 말** 54년생 한순간에 잃은 신용은 평생을 가니 방지하지 마라. 66년생 인연은 처음도 끝도 다 중요. 78년생 돈을 갚을 수 있는 자가 돈을 꿀 수도 있다. 90년생 탁상공론보다 실행하면 기적 같은 이익을 누릴 공산.
- 양** 55년생 모든 일이 예상대로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67년생 좋은 친구를 만나 하루가 즐겁다. 79년생 실물수가 보이니 사람 많은 곳에서 주의. 91년생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예법과 절차를 익혀보라.
- 원숭이** 56년생 지난 일을 잊고 새롭게 출발. 68년생 순간의 방심이 화를 부르니 아는 길도 물어서 가는 심정으로 행동. 80년생 나가는 시기가 따르니 망설이지 마라. 92년생 생각 없는 말 한마디에 상대는 다친다.
- 닭** 57년생 운세가 상승하니 주변에 도와주는 이가 있다. 69년생 어려운 시기일 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살자. 81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 비가 오는 격이니 잠시 지체해도. 93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온다.
- 개** 58년생 익숙한 일도 가버어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70년생 피로가 쌓여 일의 진행이 느리니 총정이 필요. 82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펌난감. 94년생 주관적인 판단이 남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 돼지** 59년생 남의 송사에 끼여들면 공 없는 소리를 듣게 된다. 71년생 약속을 잘 지켜야 이미지가 좋아진다. 83년생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다. 95년생 소소한 일로 일회일비하는 것은 감정 낭비.



김상회의四季 한바탕 꿈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 할지라도 깨어나면 다시 허망해질지라도 한번 원하는 부귀영화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다. 일장춘몽이라 말해지는 꿈속의 영화도 그러하거나 실제 인생 부귀영화의 허망함은 지나고 나면 역시 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여러 고사에서도 보이고 있다. 신라시대 승려였던 '조신'의 꿈이 있다. '황량몽'(黃梁夢)이라 하여 당나라 현종 때 노생(盧生)의 꿈 얘기가 있다.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 역시 인생이 한바탕 꿈과 같다는 메시지와 다름이 아니다. 꿈은 참으로 신비하다. 인간이 우주에 진출하는 시대가 되었어도 꿈에 대한 과학적 해명은 단지 뇌파의 움직임의 메카니즘 정도를 파악하여 정리해 놓았을 뿐이지 무엇이 진정 꿈의 속성이며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확언하지 못하고 있다. 꿈은 예지몽(叡智夢)적인 특성이 있다. 실제로 조신은 한바탕 꿈을 꾸고 난 후에 대오각성의 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도가에 진전을 보였다. 당나라 한단(邯鄲)지역을 향해가던 노(盧)씨 성을 가진 서생이 주막에서 잠시 쉬다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자 그 얘기를 들던 여옹(呂翁)이란 노인이 베개를 빌려주어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부귀영화의 꿈을 꾸었다. 그 부귀영화의 사이사이에 겪었던 귀양살이나 반란에 연루되어 겪는 끔찍한 고초에 놀라 깨었다. 여기서 노생에게 베개를 내주었던 여옹은 신선이었다는 것이다. 신선 여동반은 "사람의 일생이란 한바탕 꿈이 아닌가?" 하며 웃자 그는 인생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깨닫고는 여옹을 따라 도를 배우기로 하여 그를 따라 떠났다. 그가 결국 신선도를 이뤘는지 그 훗날 얘기는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노생이거나 어쩌면 노생만큼 못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 한번 꾀보고 싶어하며 인생사 고락이라 할지라도 영화 한 번 누려봤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칼날 끝에 묻은 꿀이라 할지라도 그 꿀 한번 훑아보고 싶어하는 이가 적지 않을 테니 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2	6				7	4	9
			6	9	4			
	3	1				6	2	
6								7
	4			7			5	
2		4	8		1	3		5
5		9				8		1
	1						6	

6		8		7		5		1
	9		5		1		6	
	5	9				3	4	
	6			5				9
		4					8	
				8	3	9		
9	3			6			7	8
		1	2		7	6		

스도쿠 정답								
2	9	7	6	5	4	1	8	3
1	4	8	1	9	8	7	6	9
5	6	1	9	8	7	4	2	3
8	5	1	9	4	1	2	7	6
4	1	6	2	7	1	5	8	9
7	2	9	5	8	6	1	4	2
1	8	2	7	6	9	4	5	1
6	7	4	8	1	5	9	2	3
9	1	5	4	2	8	6	3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구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45호

새로 나온 책

4차산업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이익 창출의 시대에서 가치 창출의 시대로,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시를 통해 개천에서 난 용이 되길 꿈꿨다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스타 유튜브가 돼 흡수자를 탈출하길 바란다. 게임의 장이 바뀌고 새로운 승자가 만들어진다. 책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닥쳐올 것인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디지털 시대 사용설명서다.



디지털 혁명 사용설명서
오강선 지음/클라우드 나인

디지털 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활동을 포함해 정치·사회적 행동 유인이 이익창출에서 가치창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이익이 더 중요했다. 소유할수록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쳤다. 반면, 디지털 시대는 통신문을 통해 인간과 모든 도구를 잇는다. 플랫폼이라는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참여자들의 가치창출이 더 중요하게 됐다. 가치창출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면 이용자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고, 반감을 사면 기하급수적인 이탈이 생긴다. 한 방에 훅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시대는 끝났다. 경쟁이 최적화된 한국 사회에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은 네트워크로 상호작용하며 생태계를 만든다. 이러한 생태계는 기업이 아닌 이용자가 주도한다. 어떻게 이용자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할 것인가. 거대한 디지털 혁명의 파도 앞에서 변화의 방향을 읽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서. 336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ik1@

기획자의 책 생각

이정훈, 김태한 지음/책과강연



“기획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못한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획자의 시각이다. 기획이란 연결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저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 관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기획이라고 말한다. 지난 15년간 500여 개 기업에서 위기관리 컨설팅을 맡아온 저자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기획의 원리를 ‘책 쓰기’에 적용, 책이 비즈니스의 강력한 도구로 구축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누가 읽을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기획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기획이 요구되는 시대의 변화를 진단하고 실체가 있는 기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2장에서는 책 쓰기를 모티브로 한 기획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3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기획과 1인 출판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텍스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플랫폼을 다루고 각각의 활용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을 기획하는 과정을 저자의 시선으로 훑다 보면 눈 앞에 펼쳐진 기획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216쪽. 1만3800원.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지음/창비



‘왜 법은 모두에게 불신받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심층 탐구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등 법원 안팎의 인물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입을 통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법조계 엘리트,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을 낱알이 까발린다. 법조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국사회가 가진 사법 불신의 뿌리를 파헤친다. 380쪽. 1만7000원.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노루귀

인평 녹이며 환하게 피어나는 꽃아, 그렇게 열리는 찰나의 우주

/고흥곤 작

졸업·입학 시즌 프로모션 붐물

“호텔 뷔페, 풍성한 혜택으로 즐기자”

호텔업계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풍성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이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사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호텔들은 졸업증, 입학증을 제시하는 고객에 한해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인 고객을 기준으로 1인의 식사권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에 할인을 더한 혜택으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은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졸업·입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졸업생·입학생을 동반한 4인 고객이 ‘라 따블(La Table)’ 레스토랑을 방문하면 1인에게 무료로 식사권을 제공한다. 또 다른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19층에 위치한 샴페인바 ‘르 바(Le Bar)’에서는 오픈 기념으로 오는 28일까지 디너 뷔페를 20% 할인 해준다. 디너 뷔페와 샴페인바를 모두 이용하는 고객은 20%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그랜드 힐튼 서울도 호텔의 시그니처 레스토랑인 ‘뷔페 레스토랑’에 4인 고객이 방문할 시, 1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이 레스토랑에는 한식, 중식, 양식, 디저트 등 100여가지 메뉴를 만나볼 수 있으며, 계절 및 테마에 맞는 프로모션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2월 한 달 동안은 ‘세계 미식 기행-태국’ 프로모션이 진행됐다. 졸업·입학 프로모션은 오는 3월 8일까지 운영된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이하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은 오는 3월 10일까지 ‘셀레브레이트 뉴비기닝(Celebrate New Beginning)’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호텔 20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 ‘푸드익스체인지’에서 진행되며, 졸업생 및 입학생을 동반한 3인 이상의 가족이 방문하면 1인 무료 식사 혜택을 제공한다. 또, 최소 3인 이상 방문 시에도 최대 10인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내달 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대학원 졸업·입학생을 대상으로 호텔 내 레스토랑인 ‘타볼로 24’와 ‘BLT 스테이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타볼로 24’에서는 졸업생 및 입학생을 동반한 4인 이상 고객이 저녁 뷔페를 이용할 시, 1인에 한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BLT 스테이크’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방문하는 고객에게 전체 식사 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웹캠 드링크도 내추럴 와인 또는 스파클링 와인을 1잔씩 제공한다.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뷔페 레스토랑 ‘그랜드 키친’과 ‘브래서리’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졸업생을 동반한 4인 이상 고객에게 호텔 소믈리에가 준비한 하우스 와인 1병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양 뷔페 레스토랑에서는 오



①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 ‘라 따블’ 레스토랑은 내달 3일까지 졸업·입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② 포포인츠 바이 웨라튼 서울 남산의 레스토랑 ‘더 이터리’ 전경.
③ 그랜드 힐튼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에서 오는 3월 8일까지 졸업·입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신세계조선호텔·그랜드 힐튼 서울

졸업생·입학생 동반하면 혜택 1인 무료 식사·50% 할인·1+1 등 뷔페 레스토랑 알차게 즐길 수 있어

는 3월 31일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결제 시, 주중 점심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최대 4월까지 졸업·입학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3월 29일까지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지만, 4인 이상 단체 고객에 한해 4월 30일까지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모션은 호텔 뷔페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진행된다. 졸업·입학생을 포함한 방문객 모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4인 이상의 단체 고객에겐 스파클링 와인(또는 레드와인)이 추가로 제공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관계자는 “테라스’는 샐러드 및 에피타이저 스테이션, 핫 디쉬 스테이션, 한식 스테이션, 디저트 스

테이션 등 7개의 섹션에서 한식부터 중식, 일식, 양식을 총망라하는 인터내셔널 뷔페 레스토랑이다”며 “테라스 이용객은 전면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부터 화려한 야경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도심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포인츠 바이 웨라튼 서울 남산에서는 입학 시즌인 3월 한 달간 ‘더 이터리’ 레스토랑에서 소프트드링크주문 시 1잔을 추가로 제공하는 1+1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호텔 관계자는 “‘더 이터리’ 레스토랑은 호텔 19층에 위치해 서울의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20~30대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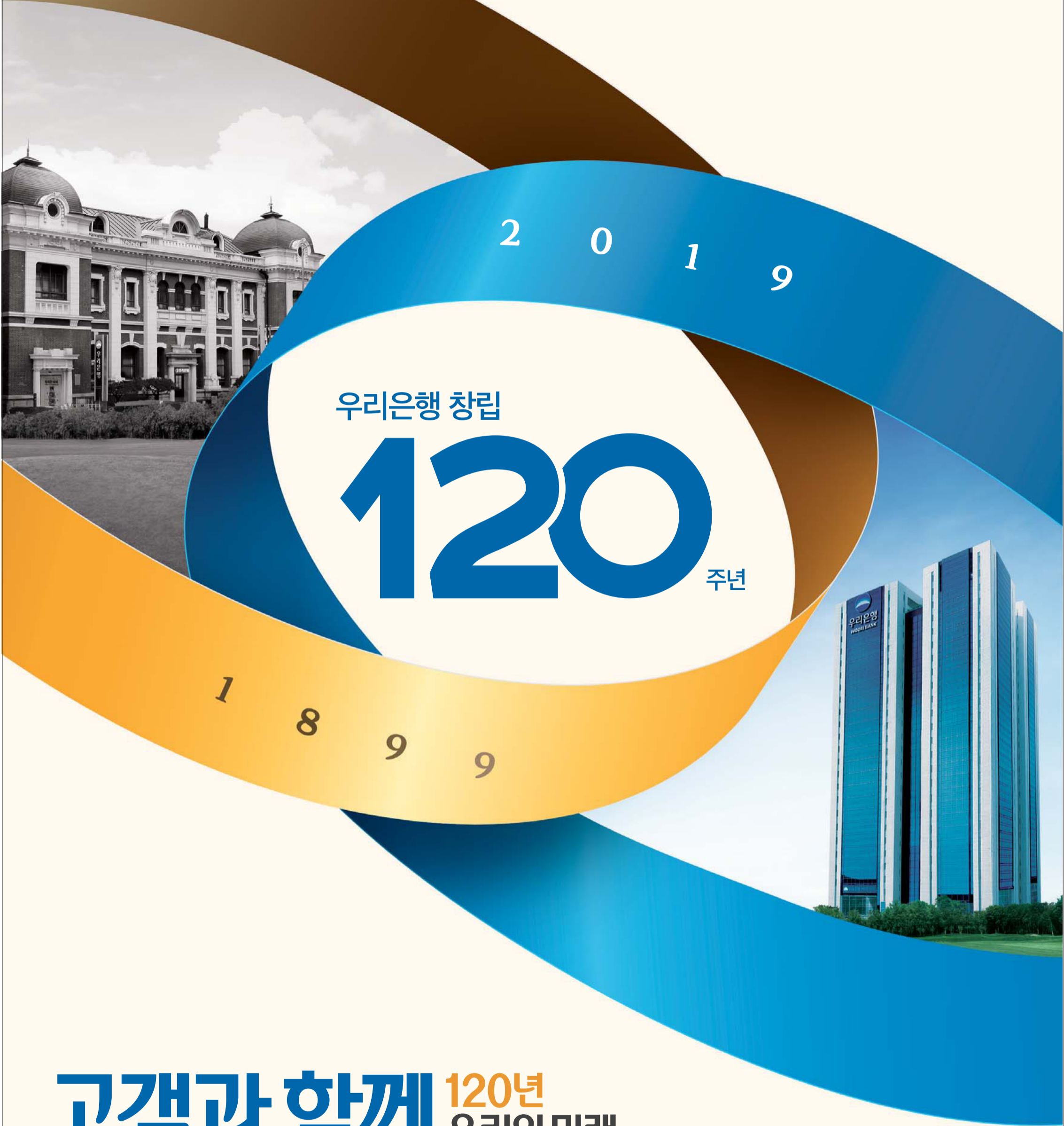
부산에서도 관련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까밀리아’에서는 내달 8일까지 ‘해피 그라두에이션(HAPPY GRADUATION)’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성인 3인 이상 이용 시에 졸업·입학생 1인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측은 “‘까밀리아’에서는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면서 “계절별 테마에 맞춰 선보이는 다양한 프로모션 요리, 라이브 키친에서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조리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The Banker誌 (더 뱅커지)
'2018년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선정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창립

120 주년

고객과 함께 120년 우리의 미래

1899년, 민족자본으로 시작한 우리은행
120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세계금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한눈에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

 우리은행



황룡강변 백일홍

올 봄엔 더 화려해진 장성 황룡강으로

꽃양귀비·백일홍 등 4색 봄꽃 파종

2019년 장성 황룡강의 봄이 더 화려해진다.

장성군은 이달부터 장성댐 하류와 시가지 부근 황룡강변의 약 16만㎡(약5만평) 부지에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백일홍 등 초화류 파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하는 화종은 붉은 꽃양귀비, 보랏빛의 수레국화, 하얀 안개초, 다양한 색이 섞인 백일홍 등이다. 5월 하순경 황룡강의 봄꽃이 화려하게 만개하도록 이달 20일까지 파종을 마무리할 계획

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단일 화종으로 심어져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올 봄에는 꽃 종자를 색깔에 따라 혼합 파종해 화려한 봄꽃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룡강 봄꽃정원은 꽃 색깔에 따라 디자인된다. 장성댐 하류부지에는 꽃양귀비와 백일홍 단지가 넓게 조성된다. 시가지 부근 황미르랜드는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등이 구획을 나눠 심어지고, 이곳부터 제2황룡교까지 약 3.2km 구간에는 강변을 따라 색깔의 꽃들이 혼합 식재된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전기차 1007대, 수소차 346대 보급

광주광역시 최대 1500만원 보조

광주광역시는 전기 1007대와 수소 346대 등 친환경자동차 총 1353대를 올해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급 공고를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며, 출고 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춘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법인 포함)는 원칙적으로 1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국비 420~900만원, 시비 250~600만원으로 총 670~1,500만원이 지원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18일부터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민간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시설소유자나 관리자는 한국자동차



광주광역시청 전경

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940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가 올해 보급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지난 5년 동안 보급한 친환경자동차 1656대(전기 1449대, 수소 207대)의 81% 수준으로, 이는 친환경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시가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주력한데 따른 결과다.

특히 시가 전기자동차 소유주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속충전기에 비해 충전시간이 최소 7배 이상 짧은 급속충전기 118기를 설치한 것도 한몫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수소차 207대가 보급돼 운영 중이며, 수소충전소는 동곡충전소와 진곡충전소 등 2기가 있다.

광주=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9 | 해질 / 18:14

2월 18일 (월)
음력 : 1월 14일

수도권 날씨
-4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 '학령인구 절벽' 직격탄

31개 학교 신입생 '0명'

16곳 나홀로 입학, 분교 4곳 폐교
진도 등 섬지역 신입생 기근 뚜렷
"교육질 저하 우려... 맞춤 대책 필요"

전남 31개 학교(분교 포함)가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학교는 신입생이 단 1명에 불과해 놓여온 인구 감소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6곳과 분교 2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은 새 학기 입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여수 10곳(분교 포함), 신안 5곳, 진도 3곳, 완도 2곳 등 섬 지역 신입생 기근 현상이 뚜렷했다.

초등학교 4곳과 분교 10곳, 중학교 1곳과 분교 1곳은 신입생이 1명에 그쳤다.

학령인구 절벽에 시골 학교들은 존폐를 고민해야 할 형편이다.

거문초 덕촌·서도, 영광중앙초 월송, 보길동초 예작 등 분교 4곳은 올해 문을 닫는다.

전남 초·중·고교생은 2000년 34만1000여명이었지만 올해 19만3000여명으로 떨어졌다.

유치원을 포함한 학생 수는 21만3942



전남도교육청

명으로 지난해(22만409명)보다도 6467명이 줄었다.

학년을 통합해 진행하는 복식 수업이 놓여온 학교에서는 흔한 풍경이 됐다.

도교육청은 2개 학년을 합쳐 학생이 5명 이하일 경우 복식 수업을 하도록 했다.

범위를 확대해 보면 전남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정의된 작은 학교는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887개 초·중·고교(분교 포함) 중 374곳(42.2%)에 달한다.

초등학교 489개 중 240곳(49.1%), 중학교 256개 중 125곳(48.8%), 고등학교는 142개 중 9곳(6.3%)이다.

초·중학교 2곳 중 1곳은 학생 수가 60명에 못 미치는 셈이다.

학생이 부족해 교육 과정이 부실해지고, 교육 여건이 좋지 않으니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구 감소나 이농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 개별화, 맞춤형 수업 등 놓여온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전남도 등 지자체, 관계 기관 등도 긴밀히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88억 투입... 국공립어린이집 120곳 확충

광주광역시

2022년 153곳·이용률 40% 목표

광주광역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20곳 확충한다.

광주시는 이용습 시장의 보육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 현재 33곳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은 1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광주시는 당초 2022년까지 10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곳이 확충되는데 그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33곳, 이용률 5.2% 등 전국에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자치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2년까지 매년 3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

기로 하고, 88억원을 시 자체 인센티브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확충 예산의 보조율을 당초 시·구비 각 25%에서 시비 35%, 구비 15%로 조정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필요한 지자체 구입비도 기존 1000만원(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과 별개로 시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

전남, 위험시설 6292곳 '안전사고 대진단' 실시

전라남도도는 오는 4월 19일까지 61일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물 2만여개소 가운데 숙박시설 256개소, 낚시어선 247개소, 식품제조·판매업체 191개소, 전통시장 77개소 등 최근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7개 분야 47개 시설물 6292개소다.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 그동안 시설물 관리자가 시행하는 자체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도와 시군의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간전문가·관리주체·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시설,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 분야별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면 안전진단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와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해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전남=봉태영 기자

용돈 벌고 건강챙기고... 경로당 대폭 확대

전남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전라남도도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어르신들의 쉼터공간인 마을 경로당을 일자리 나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19개소에서 실시했다. 올해는 3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전라남도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당에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개소당 300만~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3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돼 왔다. 대표적인 사업은 영암 비래경로당의 국화 재배 및 메주 만들기, 고흥 장남 경로당의 유자청 만들기, 곡성 반송경로당의 토란 생산 등이다.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하고,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 나눔 문화도 확산하는 등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한주 전라남도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경로당이 작업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어르신들이 수익도 창출하고, 건강도 챙기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도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참여를 바라는 경로당은 각 시군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업무 담당부서나 노인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전라남도도는 또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국비와 지방비 1천159억 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봉태영 기자

서울 도시재생 '사업비 없어' 난항... "국유지 활용을"

시·국유지 사용중이거나 제약 많아 국·공유지 관리→활용중심 변화 용도폐지 신고제로 일반재산 늘려 매각 진행 등 자유롭게 활용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격인 '앵커시설' 조성이 사업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38만5718㎡,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 7601.5㎡의 국유지가 분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거점시설 등이 포함된 앵커(핵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앵커시설은 시유지·국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 대부분이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규모·입지 등 여건에 따른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민간부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하고 공공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또 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국유지 이용 실태〉

구분	공공시설	개인주택	도로	나대지·공원 및 기타
현황 사진				
				

자료=서울연구원

시재생 관련 사업구역 내 시·국유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활용되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유지는 관리 위주에서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780억원 규모의 국·공유지 간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세종문화회관 부지 일부, 중랑하수처리장, 독도정수장 등 국유지 86필지와 구로경찰서·치안센터 등 토지·건물과 서울법원종합청사, 북한산국립공원 등 서울시 공유재산 164필지, 15동이 포함됐

다.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공유재산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이라고 연구원은 보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처분) 활용 범위 확대 ▲국유지 활용 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적용 ▲용도폐지 신고제 도입 ▲총괄사업시행자 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연구원은 행정재산이 전체 국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

므로 도시재생사업에 한해서는 행정재산을 처분·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도시재생사업에서 국유지 활용 시 이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하면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이 짧아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도폐지 신고제를 도입해 일반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개발과 매

각을 진행할 수 있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기재부 장관만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나 도시재생사업주체가 사업 구역 내 유류 행정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재산을 파악하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 신속하고 적극적인 용도폐지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난개발이나 민간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연구원은 민간이 직접 재생사업에 투입되는 방법 대신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활용해 민관이 복합된 주체를 형성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국유지 활용 시 난개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총괄사업시행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괄사업시행자는 공공지분이 과반을 차지하는 공공주도의 민관협력주체다. 연구원은 공공지분을 높여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위험 등 민간시장 과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유류 행정재산을 활용하는 건 필수적"이라며 "국·공유지의 원활한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 구조 헬기가 산악사고자를 구조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동물구조 줄고 교통사고 구조 늘었다

소방재난본부, 119출동 거부 성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단순한 잠금장치 개방이나 간단한 동물구조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출동기준을 변경한 결과 동물관련 구조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교통사고 구조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경기도 구조활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총 20만1,697회 출동, 15만46건을 구조 처리했

으며 이를 통해 2만1,599명을 구조했다. 2017년 대비 도내 구조출동은 1만176회(5.3%), 구조건수 767건(0.5%) 증가했고, 구조인원은 890명(3.9%)이 감소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발집제거 건수는 3만5,577건에서 3만4,208건으로 3.8%, 동물포획은 3만3,331건에서 1만5,488건으로 53.5%, 잠금장치개방은 1만2,894건에서 1만1,813건으로 8.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구조건수는 1만5,441건에서 1만8,416건으로 19.3% 늘었다. /경기=김승열기자 kimsy@

'3·1운동 100년' 세종대로서 만세행진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서울광장서 '꽃을 기립니다' 전시 안국역에 기미독립선언 '100년계단'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종대로서 100년 전 만세 행진을 재현한다. 3·1운동 발상지인 삼일대로 일대는 역사적 상징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공감(3·1운동 100주년 시민 공감대 확산) ▲기억(기념공간 조성·활용) ▲성찰(우리역사 바로알기)을 핵심 키워드로 총 30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3·1절 당일에는 서울광장~세종대로~광화문 일대에서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00년 전 민족이 하나 돼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날의 합성을 다시 한 번 재현하며 세종대로 일대

를 행진한다. 서울광장에서는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짚어볼 수 있는 '꽃을 기립니다' 전시가 열린다.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대화관 터'와 3·1운동 발상지인 '삼일대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대화관 터는 '3·1독립선언광장'으로 만들어진다. 3월 착공해 8·15 광복절에 맞춰 개장할 계획이다. 삼일대로(안국역~종로2가) 주변에는 독립선언문 배부터(쉼터, 녹지), 천도교 중앙대교당(정원, 포토존) 등을 중심으로 5개의 시민 공간이 조성된다.

지하철 안국역에는 기미독립선언서가 새겨진 '100년 계단'이 만들어진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입수해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의 한국 거주지 '딜쿠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복원 공사를 하고 있다. 3월 1일 오후 2

시 시민공개행사를 가진다.

시는 시민들이 근현대사를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학술 심포지엄, 역사강좌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전시회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진행된다. 석호필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3·1운동 정신과 제암리 학살 참상을 세계에 알린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를 포함한 캐나다인 5명을 조명하는 기념 전시회는 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열린다.

일제강점기 광복군과 임시정부 요원들이 환국할 때 탑승했던 C-47기 수송기를 활용한 교육·전시 프로그램(여의도공원 내), 조선인 강제징용의 아픔을 되새기는 '군함도-군간지마 전시회'(9월), 일제강점기 복음을 지킨 정세권 선생 기념 전시회(4~5월) 등이 연중 개최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 5곳에 7월 '돌봄SOS센터' 첫선

긴급 가사·간병 등 맞춤형 서비스 2021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긴급돌봄, 일상 편의 등을 지원하는 '돌봄SOS센터'가 7월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2021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창구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할 때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등 일상적 돌봄까지 주민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

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된다.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보건소나 치매센터, 복지관 등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이뤄진다.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로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지 파악한다. 이후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수립,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돌봄매니저가 만족도 조사, 사후점검을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한다.

시는 자격이 맞지 않아 기존 제도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했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연간 최대 5일까지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110명 선발

경기도가 도민들의 먹거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올 상반기 총 110명의 명예감시원을 선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도내 음식점과 전문판매점 등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1억6500만 원

으로 도가 30%, 시 군이 70%를 부담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명예감시원은 농수산물 생산유통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명예감시원은 도내 신규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을 위주로 1일 6~10곳을 방문, 원산지 표시 제도 및 위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감시원에게는 1일 5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산업]
사치와 가치 사이
非필수 가전
프리미엄 열풍
05



Life

[라이프]
롯데백화점
40년만에 본점 개혁
'리빙관 1공구' 인기
L2



“언어는 ‘학문’ 아닌 ‘문화’... 배우지 말고 익혀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잉글리시 카페 '조이랜드'

마재영 대표

회화 어려운 사람들 위한 영어카페
영어, 문화 공유 '즐거운' 수단으로
대화 나누며 자연스럽게 언어습득

우울증 겪으며 사람들 돕기 시작
사회 곳곳에 도움 되는 일 하고파

휠체어를 타고 800km 산티아고 순례 길을 38일 동안 달렸다.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의 아픔과 불편을 몸소 겪어보고 싶어 스스로 기획한 일이다. 휠체어 위에서 맞은 타지의 새벽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지난 2017년 스토리 펀딩을 통해 '산티아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을 그대로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았던 20대 마재영씨는 이제 서른이 됐고, 사업가가 됐다. 남을 잘 도우려면 우선 수익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재영 대표가 올해 초 서울 당산동에 문을 연 잉글리시 카페 '조이랜드'를 찾았다. 유럽 뒷골목, 어느 작은 카페에서 만난 현지인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꿈같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조이랜드의 첫 느낌은 그랬다.

◆“영어, 일단 막 내뱉어라”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즐거운' 과정, 생각을 공유하는 '즐거운'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 대표는 사명으로 '조이(JOY)'를 택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를 여학사업이 아닌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영어는 점수와 등급에 치중한 '학문'이 아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생경했다. 조이랜드를 단순히 카페 형태의 영어 학원이라고 여겼던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영어는 수단일 뿐, 제대로 결과가 되어서는 안돼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조이랜드는 배우는 곳이 아니라 나누



조이랜드 마재영 대표(왼쪽)와 튜터 이명아씨.

는 곳이다. 그것도 아주 즐겁게.

“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들은 먼저 가르쳐드려요. 대체로 최대 4명 안에서 영어로 대화가 이루어지죠. 튜터들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기만 해요. 지켜보면서 각자 어려워하는 표현들을 정리한 피드백지를 나중에 제공하죠.”

조이랜드가 가장 돕고 싶은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영어 초보자다. 쓰고 읽는 건 되는데 말은 도저히 안 된다고 토로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렇지 않을까 싶었다.

모든 것은 스스로의 경험에서 시작됐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한국을 떠났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15살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말이 터졌다. 그는 자신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노는 아이'였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죠. 놀기 위해 대화를 해야 했고, 그래서 영어를 하게 됐어요. 말을 잘하고 싶다면, 언어가 학습이라는 관념을 먼저 깨야 해요.”

마 대표는 조이랜드를 찾는 고객들에 '일단 막 던져라'라고 조언한다. “문법을 따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우선 내뱉어라. 그렇게 던지다보면 심리적인 장벽이 사라질 것이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세상

스무살 무렵,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몇 년간 땅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던,

끝없이 무기력한 기분을 아직 기억한다고 했다.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 무작정 군에 입대한 것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도 잡았을 무렵이었다. 한국인으로 국적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비국적자 신분으로 입대했다. “후회하지 않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후회했어요(웃음).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켜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제대하던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우울증과 같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스텔라 재단을 운영하고 있던 친구였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마음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돕다보니 역설적으로 내가 치유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돕는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인가 깨달았죠.”

'산티아고 프로젝트'도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 기획한 일이다. “우울증 겪으면서 남자처럼 이겨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신체 장애도 감히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 못할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너무 많니까. 인류에 처럼 거창한 건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나도 좋고, 남들도 좋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영어를 즐겁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처럼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손사레 치는 그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냐고 물었다.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혼족, 혼밥, 혼영과 같은 트렌드가 생기는 게 안타까워요. 행복은 더불어 사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즐겁게 나눌 수 있는 밝은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괜찮아' 한마디가 필요한 거니까.”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조이랜드 카페 전경.



/조이랜드